
2016 12월

분석 및 전망

12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요약

【자연재난】

◆ 최근 10년('06~'15년)간 총 186건의 자연재난으로 218명의 인명피해와 총 5조2,51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그중 12월은 17건의 자연재난으로 91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대설) 최근 10년('06~'15년)간 총 36회의 대설이 발생하였으며, 12월 중 14회의 대설로 841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강풍·풍랑) 최근 10년('06~'15년)간 총 46회의 강풍·풍랑이 발생하였으며, 12월 중 3회의 강풍·풍랑으로 7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09.12.4~6)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바람으로 육상에 강풍특보가 발효,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천문현상과 겹치면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및 경보 발효

【사회재난】

◆ 5년('11~'15년)간 총 1,498,338건의 사회재난 중 12월에 119,557건 발생
※ 난방 및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화재, 실내 안전사고 주의 필요

○ (가스사고) 최근 5년('11~'15년)간 가스사고는 총 610건으로 사망자 78명, 부상자 778명의 인명피해 발생, 12월 중에 68건으로 11.1%가 발생

※ 사고원인은 사용자부주의 33%, 시설미비 18%, 고의사고 14%, 공급자부주의 9% 순

○ (승강기사고) 최근 5년('11~'15년)간 승강기사고는 450건으로 사망자 37명, 부상 531명의 인명피해 발생, 12월 중에는 46건으로 10.2%가 발생

※ 사고발생 원인은 이용자 과실 77%, 보수검합 11%, 관리부실 7% 순

○ (스키장사고) 최근 5년('11~'15년)간 스키장 이용 중 10,141명의 부상자 발생, 부상부위별로는 무릎이 14.9%로 가장 많고, 머리 10.6%, 어깨 9.4% 등 순

※ 사고발생 원인은 개인부주의가 62%, 과속 23%, 기타 15% 순

【소방활동】

(화재) 최근 5년('11~'15년)간 총 214,62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2월에 18,755건(8.7%)이 발생하여 172명의 사망자가 발생

- 장소별로는 주택 29.5%, 야외(소각 등) 17.7%, 자동차 11.7%, 공장·창고 10.6% 순
- 원인별로는 부주의 44.5%, 전기적요인 25.3%, 기계적요인 11.6% 순

※ 12월 중 1일 평균 화재 125건, 사망 1.15명, 재산피해 6.1억원 발생

○ (구조) 최근 5년('11~'15년)간 총 2,075,436건의 구조활동 중, 12월에 125,929건 (6.1%)의 구조활동으로 43,331명을 구조

○ (구급) 최근 5년('11~'15년)간 총 7,742,255건의 구급활동 중, 12월에 644,513건 (8.3%)의 구급활동으로 664,998명의 응급환자를 이송

【해양경비안전활동】

○ (중국어선 단속) 최근 3년('13~'15년)간 우리수역에서 총 239,565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였으며 1,396척이 불법어로행위로 나포됨, 12월 중에는 251척의 선박을 나포

※ 10월 중순부터 중국 저인망어선 조업척수 증가, 12월까지 일일 4~500여척 조업전망

○ (선박사고) 최근 3년('13~'15년)간 총 5,210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2월 중에는 449척(8.6%)의 선박사고가 발생

※ 사고원인은 기관고장 24.9%, 충돌·접촉 21.8%, 화재·폭발 8.9% 침수 6.2% 순

○ (연안사고) 최근 3년('13~'15년)간 총 2,874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하여 391명이 사망하였으며, 12월 중에 94건(3.3%)이 발생하여 18명이 사망

※ 사고 유형은 익수 36%, 추락 30%, 고립 23% 순

목 차

I. 및 조위 분석	
1. 12 기상전망	1
2. 3개월 기상전망	2
3. 겨울철 기후 전망	3
4. 12월 조위 분석 및 전망	4
II. 12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1. 자연재난	7
2. 사회재난	9
3. 소방활동	17
4. 해양경비안전활동	21
III.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	
1. 경남 밀양시 「마그네슘 공장」 화재	26
2. 대구 중구 「서문시장」 화재	26
IV. 과거 12월 주요 재난사례 분석	
1. 서해대교 화재	27
2. 대구 성서공단 가스유출 사고	28
3. 인천 계양구 복합건물(00마사지) 화재	28
4. 원양어선 501 오룡호 배링해 침몰사고	29
V. 재난관리 정보마당	
1. 강풍특보 시 행동요령	30
2. 풍랑특보 시 행동요령	30
3. 대설 대비 행동요령	31
4. 가스사고 예방 행동요령	33
5. 승강기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35
6. 스키장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36
7. 전기장판 안전사고 예방요령	36
8. 갯바위 등 바다낚시 사고예방 요령	40
9. 갯벌 해루질 사고예방 요령	40
VI. 언론보도 사항	
1. 2016년 11월 언론보도 주요내용	41
2. 2015년 12월 언론보도 주요내용	45

1. 12월 기상전망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량) 평년보다 적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 날씨 전망

1 (12.05~12.11)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다가 점차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2주 (12.12~12.18)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3주 (12.19~12.25)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4주 (12.26~01.01)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기온 및 강수량

	1주 (12.05~12.11)	2주 (12.12~12.18)	3주 (12.19~12.25)	4주 (12.26~01.01)
평균 기 온	40% 40% 20% 평년(2.7℃)과 비슷하거나 낮음	40% 40% 20% 평년(1.3℃)과 비슷하거나 낮음	40% 30% 30% 평년(1.0℃)과 비슷	40% 40% 20% 평년(-0.2℃)과 비슷하거나 낮음
강 수 량	50% 30% 20% 평년(7.9mm)보다 적음	50% 30% 20% 평년(4.5mm)보다 적음	40% 30% 30% 평년(4.2mm)과 비슷	40% 40% 20% 평년(4.8mm)과 비슷하거나 적음
평균기온: 낮음 (blue) 비슷 (grey) 높음 (red) 강수량: 적음 (orange) 비슷 (grey) 많음 (green)				

2. 3개월 기상전망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량) 평년보다 적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 날씨 전망

(12월)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중순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1월)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나, 건조한 날이 많겠음.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2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기온 및 강수량

	12월	1월	2월
평 균 기 온	40% 40% 20% 평년(1.5°C)과 비슷하거나 낮음	30% 40% 30% 평년(-1.0°C)과 비슷	20% 50% 30% 평년(1.1°C)과 비슷
강 수 량	50% 30% 20% 평년(24.5mm)보다 적음	40% 40% 20% 평년(28.3mm)과 비슷하거나 적음	40% 40% 20% 평년(35.5mm)과 비슷하거나 적음
기온 낮음 (blue) 비슷 (grey) 높음 (red) 강수량 적음 (orange) 비슷 (grey) 많음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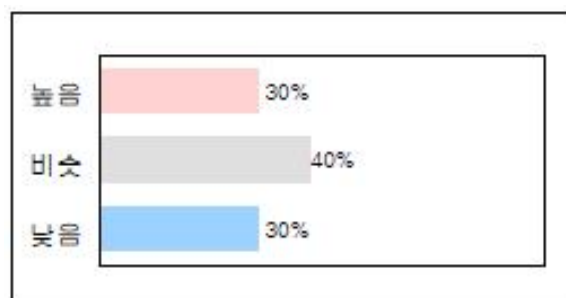
3. 겨울철 기후 전망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됨
가을철에 발달하는 라니냐 상태가 겨울철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평균기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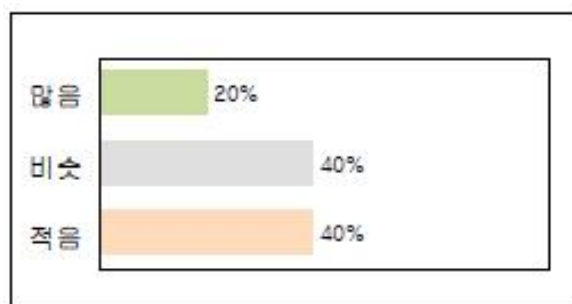
평년(0.6℃)과 비슷하겠으며,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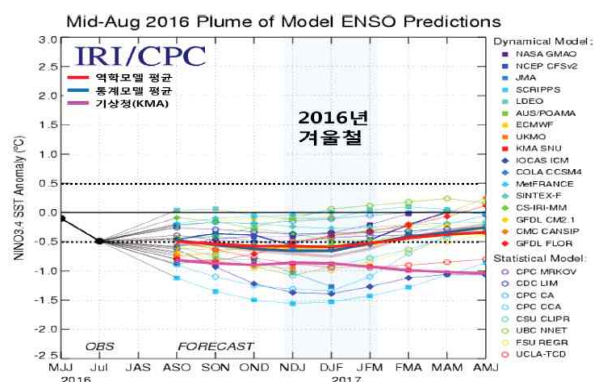
▣ 강수량 전망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엘니뇨/라니냐 전망

○ 가을철에 발달하는 라니냐 상태가 겨울철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 12월 조위 분석 및 전망

※ 자료제공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12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기압이 높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면서 해수면이 11월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 지역이 11월에 비해 최대조차와 최대조위가 낮아짐.

가. 조위와 일조차

- 최고조위는 15일에 발생하며, 최저조위는 15일에 발생함.
- 최대조차는 15일에, 고조정보 ‘주의’ 이상이 5개 지역에서 나타남.

【해역별 주요지점 조위 및 일조차 - 국립해양조사원】

역	지 점	조위(cm)				일조차(cm)			
		최고		최저		최대		최소	
		높이	일시	높이	일시	크기	날짜	크기	날짜
중부	인 천	923	15 17:56	-36	15일 11:42	959	15일	375	23일
	안 산	866	15일 17:43	-44	15일 11:29	910	15일	348	23일
	평 택	947	15일 17:42	-17	15일 11:35	964	15일	372	23일
	안 흥	702	15일 16:53	-18	15일 10:37	720	15일	276	23일
황해 남부	군 산	725	15일 16:09	-17	15일 10:15	742	15일	288	23일
	영 광	695	15일 15:45	-12	15일 09:37	707	15일	269	23일
	목 포	499	15일 15:20	-68	15일 07:53	567	15일	212	23일
	흑산도	378	15일 14:49	-21	15일 07:51	399	15일	146	23일
남해 서부	진 도	403	15일 12:00	-46	15일 05:49	449	15일	125	23일
	완 도	404	15일 11:03	-21	15일 04:50	425	15일	99	23일
	고흥발포	394	15일 10:27	-21	15일 04:00	415	15일	94	23일
	여 수	366	15일 10:04	-8	15일 03:28	374	15일	103	24일
남해 동부	거제도	212	15일 09:41	-17	15일 02:58	229	15일	72	22일
	통 영	285	15일 09:51	-13	15일 03:12	298	15일	86	24일
	마 산	200	15일 09:49	-18	15일 03:02	218	15일	67	22일
	부 산	133	15일 09:19	-10	15일 02:46	143	15일	45	22일
제주	제 주	296	15일 11:43	-8	15일 05:23	304	15일	71	22일
	성산포	265	15일 10:51	-25	15일 04:17	290	15일	57	23일
	서귀포	313	15일 10:52	-20	15일 04:15	333	15일	70	23일
	모슬포	290	15일 11:34	-30	15일 04:56	320	15일	76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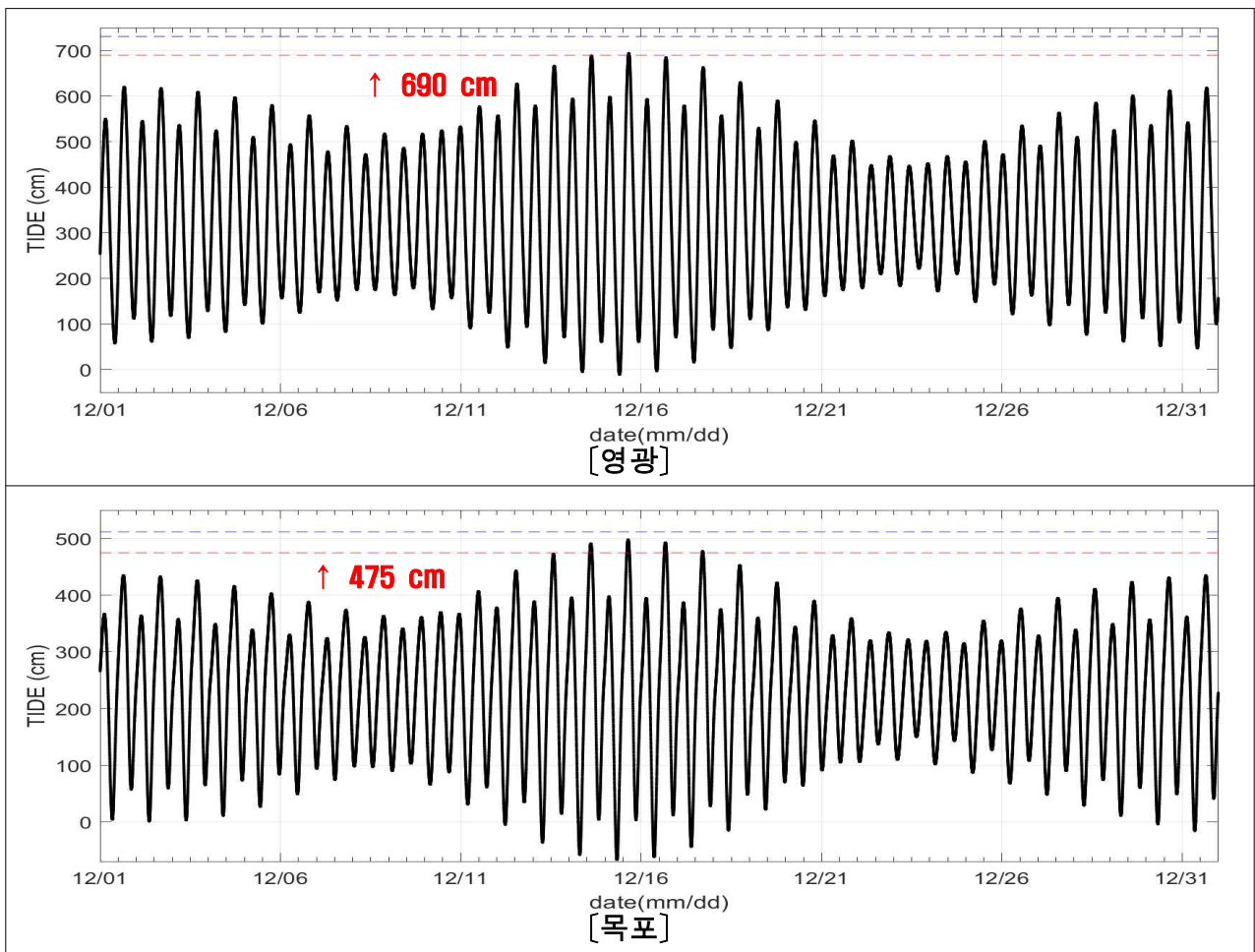
나. 고조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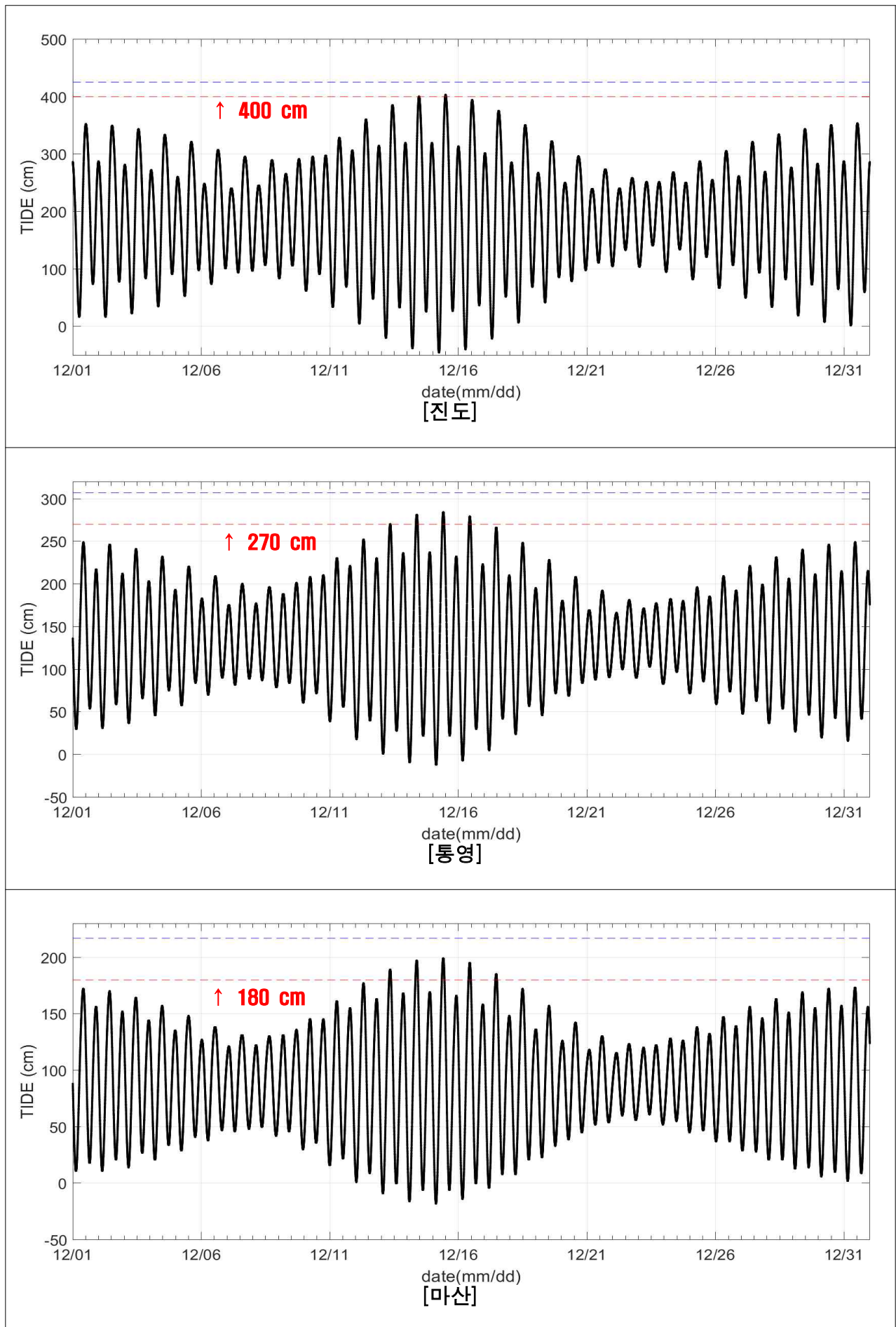
【고조정보 ‘주의’ 이상이 나타나는 기간(총 5개소) - 국립해양조사원】

	지점	4단계고조정보(cm)				주의 이상 발생	고조시간/ 조위(cm)
		관심	주의	경계	위험		
남부	영광	670	690	731	773	12. 15.(), 15:27 ~ 16:04	15:45 / 695
	목포 평택	455	475	512	550	12. 14.(수), 13:46 ~ 15:13	14:30 / 492
						12. 15.(목), 14:28 ~ 16:11	15:20 / 499
						12. 16.(금), 15:22 ~ 16:53	16:08 / 494
						12. 17.(토), 16:35 ~ 17:12	16:53 / 478
남해 서부	진도	380	400	425	450	12. 14.(수), 11:08 ~ 11:20	11:14 / 400
						12. 15.(목), 11:37 ~ 12:24	12:00 / 403
남해 동부	통영	250	270	307	345	12. 13.(화), 08:07 ~ 08:27	08:17 / 271
						12. 14.(수), 08:17 ~ 09:53	09:05 / 282
						12. 15.(목), 08:57 ~ 10:46	09:51 / 285
						12. 16.(금), 09:52 ~ 11:20	10:35 / 279
	마산	160	180	217	255	12. 13.(화), 07:17 ~ 09:05	08:13 / 190
						12. 14.(수), 07:48 ~ 10:09	09:02 / 198
						12. 15.(목), 08:31 ~ 10:58	09:49 / 200
						12. 16.(금), 09:23 ~ 11:36	10:33 / 196
						12. 17.(토), 10:31 ~ 11:55	11:14 / 186

다. 조위예측

【관측소별 조위예측 - 국립해양조사원】





Ⅱ 12 재난발생 현황 분석

1. 자연재난

12월은 겨울철 대비 농·축·수산시설 등의 제설대책 추진과 함께 강풍·풍랑에 의한 피해예방 활동이 필요함

< 총괄 >

◇ 기상상황 분석

- ▶ 최근 10년('06~'15년)간 12월에 2,035건의 특보 발표
- ▶ 대설 719회, 풍랑 586회, 강풍 377회, 한파 180회, 건조 137회 순으로 발표

【최근 10년('06~'15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6,056	1,609	1,215	1,343	1,173	787	619	2,367	2,221	962	616	1,109	2,035
강풍	2,782	215	223	369	370	201	67	177	163	121	190	309	377
풍랑	4,211	513	394	421	424	206	136	218	255	271	292	495	586
호우	4,297	7	19	62	135	217	383	1566	1345	416	75	62	10
대설	1,855	504	342	166	14	-	-	-	-	-	-	110	719
건조	1,088	177	143	229	196	101	2	-	-	-	21	82	137
해일	28	-	-	-	-	-	4	1	18	2	3	-	-
황사	230	-	30	70	34	52	-	-	-	-	-	18	26
한파	505	193	64	26	-	-	-	-	-	-	9	33	180
태풍	396	-	-	-	-	-	14	82	135	139	26	-	-
폭염	664	-	-	-	-	10	13	323	305	13	-	-	-

◇ 자연재해 분석

- ▶ 최근 10년('06~'15년)간 발생한 월별 자연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6건의 자연재해로 218명의 인명피해와 5조 2,51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2월에 17건의 자연재해로 914억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간('06~'15)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월	11월	12월
건수	186	10	12	15	13	3	11	43	33	12	8	9	17
인명피해 (명)	218	-	-	1	-	-	-	171	19	26	1	-	-
재산피해 (억원)	52,515	504	731	716	364	7	124	28,591	11,873	7,707	764	220	914

가. 대설

○ 최근 10년('06~'15년)간 12월 중, 14건의 대설로 841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6~'15년)간 월별 대설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월	11월	12월
피해발생 회수	36	8	8	4	0	0	0	0	0	0	0	2	14
인명피해(명)	0	-	-	-	-	-	-	-	-	-	-	-	-
이재민(명)	218	6	194	5	-	-	-	-	-	-	-	1	12
재산피해(억)	2,205	394	611	279	-	-	-	-	-	-	-	80	841

【최근 10년('06~'15년)간 12월중 대설 피해발생 현황 - 재해연보】

기간		인명피해 (명)	이재민 (명)	재산피해 (억원)	주요 피해지역
총 회		0	12	841	
1	2006.12.16~18	-	-	36	,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	2007.12.29~31	-	1	74	광주, 전북, 전남
3	2008.12.21~23	-	6	8	강원
4	2008.12.04~07	-	-	16	충남, 전북, 전남
5	2009.12.16~21	-	-	10	전북, 전남
6	2010.12.29~1.1	-	4	283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7	2012.12.28	-	-	89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	2012.12.21	-	-	2	대전, 충북, 경북
9	2012.12.06~08	-	-	110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0	2012.12.05	-	-	2	경기, 충북, 전북
11	2013.12.10~12	-	-	2	경기
12	2014.12.15~17	-	1	1	경기, 전남
13	2014.12.01~06	-	-	145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4	2015.12.03~04	-	-	63	경기, 충북, 충남

○ ('10.12.29~1.1) 12.29일부터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지속적으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집중 강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 ('12.12.28) 대륙고기압으로부터 내려오는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온난다습한 공기가 남해안 부근에서 수렴되면서 남쪽을 지난 저기압을 강화시켜 전국에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렸음

○ ('14.12.1~6) 지상 5km 부근에 -30℃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남하하면서 해상에서 형성되는 눈 구름대와 만나 충청 이남 서해안에 장기간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발생

- 장기간(6일)의 연속된 강설로 설하중에 취약한 농업시설물 중에서도 비닐하우스에 피해 집중

※ 최심적설(mm) : 태안 28, 서산 27.5, 당진 20, 보령 19.5

※ 일최대순간풍속(m/s) : 태안 29.3, 부안 27.5, 군산 26.9, 서천 25.5, 서산 16.4

나. 강풍·풍랑

- 최근 10년('06~'15년)간 12월 중, 3건의 강풍·풍랑으로 73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최근 10년('06~'15년)간 월별 강풍·풍랑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월	11월	12월
피해발생 회수	46	2	4	10	11	2	0	3	1	0	5	5	3
인명피해(명)	1	-	-	1	-	-	-	-	-	-	-	-	-
이재민(명)	161	-	5	92	52	-	-	-	-	-	6	6	-
재산피해(억)	1,315	110	120	41,2	361	7	-	43	2	-	49	138	73

【최근 10년('06~'15년)간 12월중 강풍·풍랑 피해발생 현황 - 재해연보】

기간			인명피해 (명)	이재민 (명)	재산피해 (억원)	주요 피해지역
총 회			0	0	73	
1	풍랑	2009.12.04~06	-	-	70	, 충남, 전북
2	강풍	2010.12.10	-	-	2	충남, 경북
3	강풍	2015.12.02~05	-	-	1	충남, 경북

- ('09.12.4~6)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바람으로 육상에 강풍 발효되었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천문 현상이 겹치면서 서해 중부·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
- 충남 서천해역의 김양식시설이 채취전 자중이 증가된 상태로 조류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주변시설까지 연쇄 피해를 유발

2. 사회재난

겨울철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 증가에 따른 화재, 가스 취급 사고 및 실내 (쇼핑몰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총괄 >

◇ 발생현황

- ▶ 최근 5년('11~'15년)간 총 1,498,338건의 사회재난 중 12월에 119,557건(8.0%) 발생
- ▶ 월 평균 23,991건 발생하여 전월(11월) 25,403건에 비해 1,492건 감소

【최근 5년('11~'15년)간 전월 대비 사회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구 분		계	교통	화재	추락	등산	자전거	농기계	붕괴	기타
5년 전체	총건수	1,498,338	1,116,308	214,626	34,549	33,139	28,888	7,546	1,999	61,283
	11월	127,015	100,471	15,237	2,698	2,327	1,933	536	131	3,682
	12월	119,557	92,578	18,755	2,299	1,619	1,048	207	130	2,921
5년 평균 (전월 비교)	11월	25,403	20,094	3,047	540	465	387	107	26	737
	12월	23,911	18,516	3,751	460	324	210	41	26	583
	증감 (%)	-5.9	-7.9	23.1	-14.8	-30.4	-45.9	-61.4	-0.8	-20.7

※ 기타 : 철도(열차), 감전, 해양,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시설, 광산, 승강기 등

< 12 발생 주요 사건·사고 사례 >

- ▶ '15.12. 3 화재 발생(사망 1, 부상 2)
- ▶ '14.12. 1 원양어선 501 오룡호 베링해 침몰사고(사망 27명, 실종 26명)
- ▶ '14.12.13 경기 일산 동구 복합건물 화재(단순연기 흡입 39명)
- ▶ '14.12.10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가스(염소가스) 유출사고(경상 50명)
- ▶ '13.12.19 부산 남·북항 영도연결도로 구조물 붕괴사고(사망 4명)
- ▶ '11.12.09 인천 지하철 보수작업자 선로 진입 중 사고(사망 5명, 부상 1명)
- ▶ '10.12.20 울산산업단지 중질유 분해공장 보수작업 중 폭발(사망 1명, 부상 6명)
- ▶ '10.12.13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상행선 교통사고(사망 7명, 부상 22명)
- ▶ '08.12.05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 7명, 부상 6명)
- ▶ '07.12.07 충남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사고(어장 29,454ha, 해안가 70km 오염)
- ▶ '05.12.29 대구 중구 서문시장 화재(186억원 피해)

◇ 주간안전사고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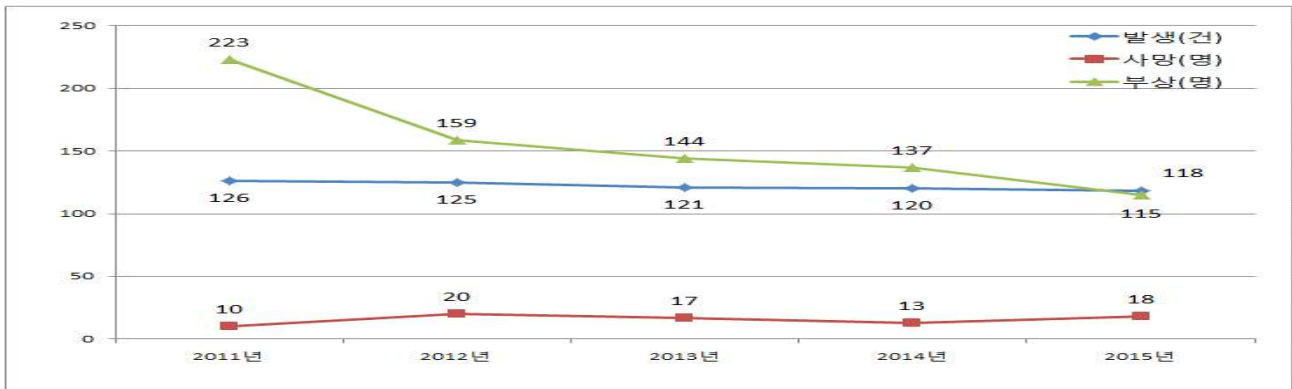
- ▶ (1주) 가스안전사고 (2주) 스키장 안전사고 (3주) 빙판길 주의 (4주) 음주운전 주의

가. 가스사고

○ 최근 5년('11~'15년)간 총 610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856명(사망 78명, 부상 778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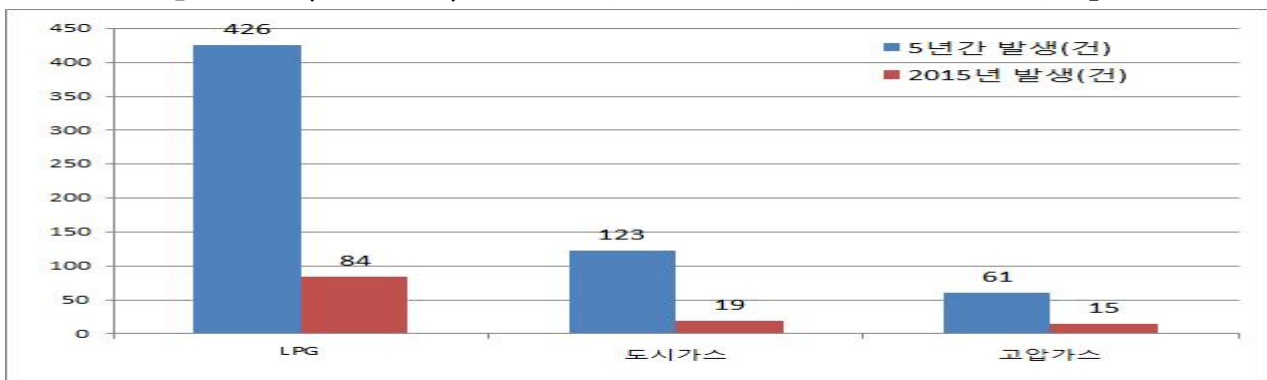
- 발생건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부상자는 2011년 223명에서 2015년 115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최근 5년('11~'15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종류별로는 LPG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고 도시가스, 고압가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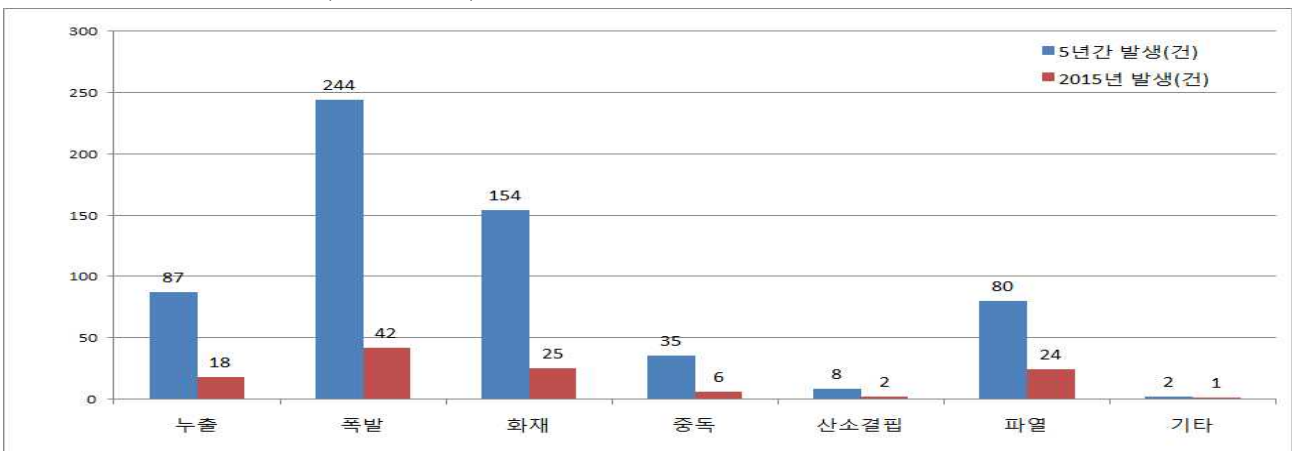
【최근 5년('11~'15년)간 가스 종류별 발생 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 : 산소, 수소, 질소, 암모니아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지정된 고압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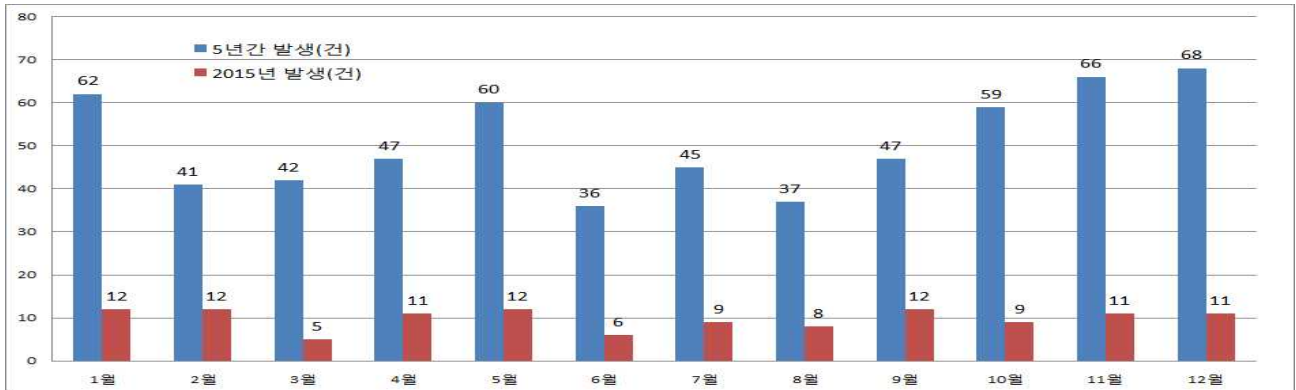
○ 사고 형태별로는 폭발이 244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누출, 파열 순

【최근 5년('11~'15년)간 사고형태별 발생 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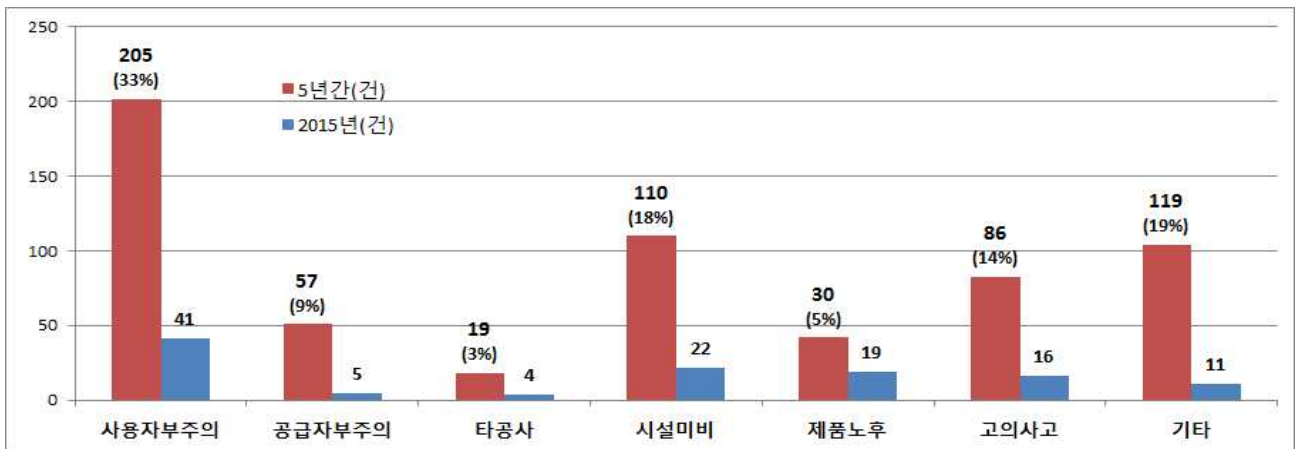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월별 사고 발생현황은 12월에 68건으로 가장 많고, 11월 66건, 1월 62건 순으로 발생

【최근 5년('11~'15년)간 월별 발생 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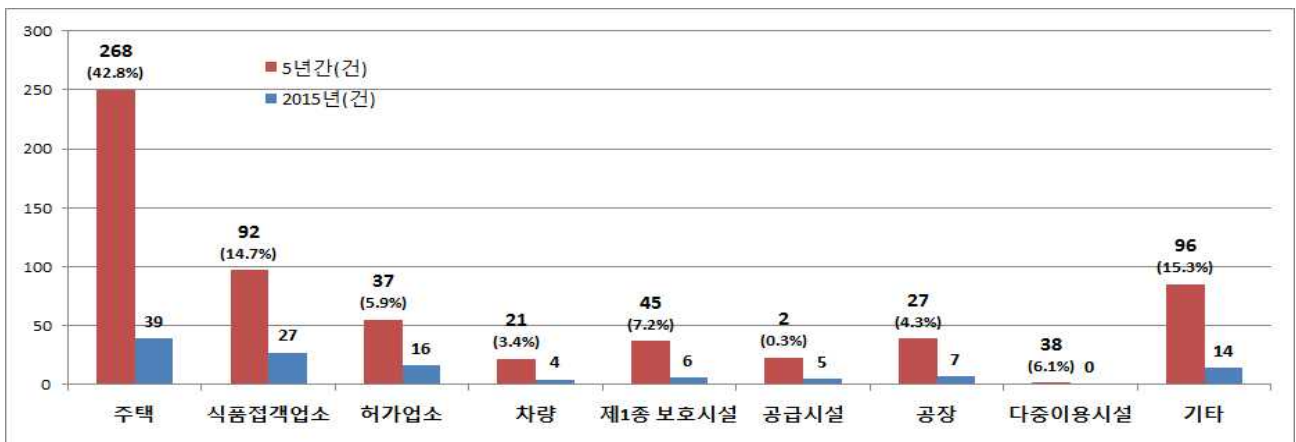
- 원인별 발생현황은 사용자 부주의가 205건(33%)으로 가장 높고, 시설 미비, 고의사고, 공급자부주의 순으로 발생

【최근 5년('11~'15년)간 원인별 발생 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용장소별로는 주택에서 268건(42.8%)로 가장 많고, 식품접객업소, 허가업소 순으로 발생

【최근 5년('11~'15년)간 사용장소별 발생 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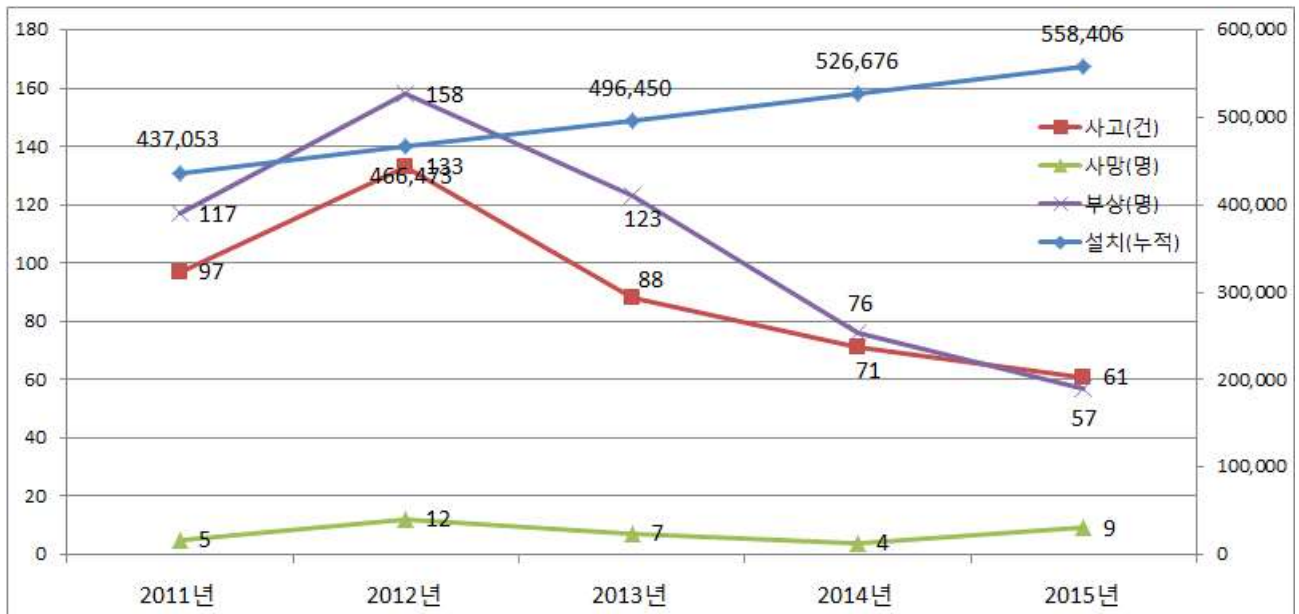


나. 승강기사고

○ 건물의 대형화·고층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승강기 설치가 증가하여 2015년 누적설치 558,40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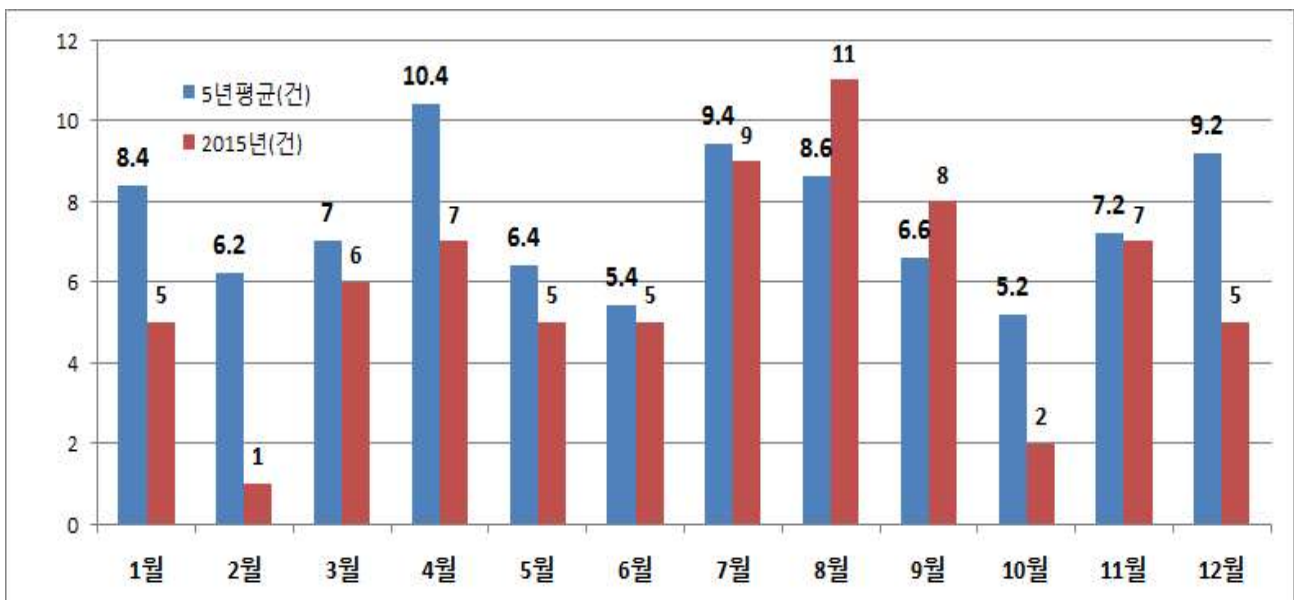
- 최근 5년('11~'15년)간 총 450건의 사고로 인명피해 568명(사망37명, 부상 531명)이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건수 및 부상자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

【최근 5년('11~'15년)간 승강기 설치 및 사고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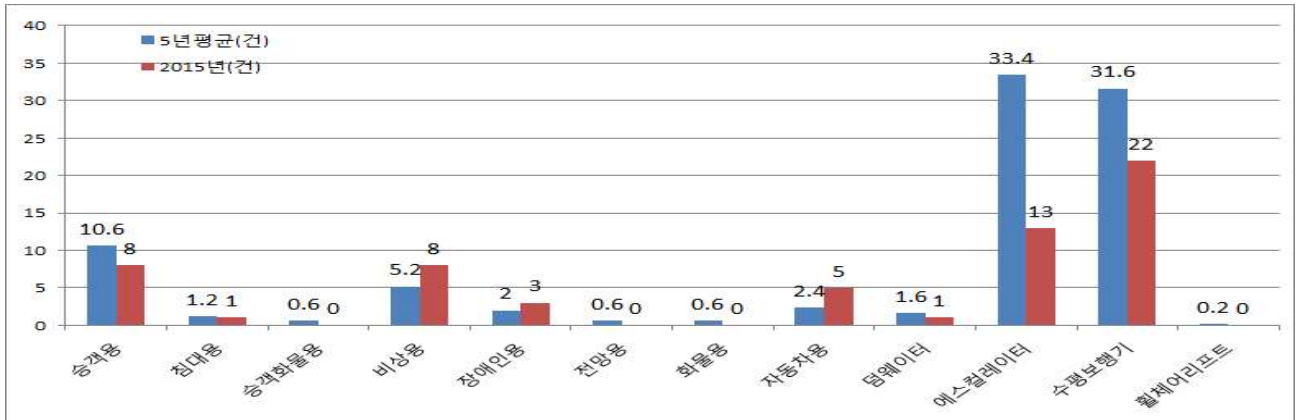
○ 최근 5년('11~'15년)간 월별 승강기사고 발생은 4월에 연평균 10.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7월, 12월 순으로 발생

【최근 5년('11~'15년)간 월별 사고 발생 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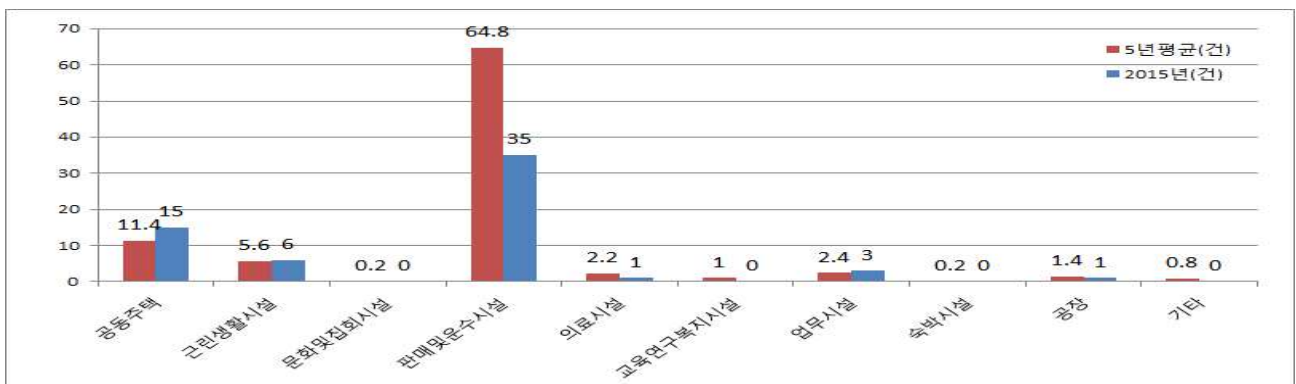
- 승강기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33.4건(37%)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평보행기에서 31.6건(35%),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10.6건(11.8%) 순

【최근 5년('11~'15년)간 승강기 종류별 사고 발생 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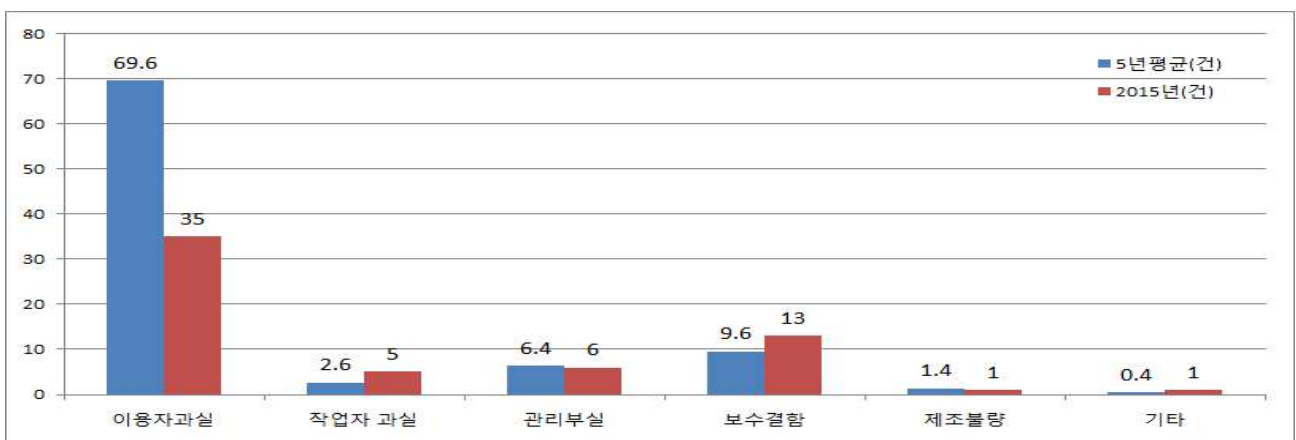
- 사고발생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판매 및 운수시설에서 64.8건 (72.0%)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 11.4건(12.7%), 근린생활시설 5.6건(6.2%) 순

【최근 5년('11~'15년)간 사고 장소별 발생 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사고 발생 원인은 이용자 과실 69.6건(77.3%), 보수결함 9.6건(10.7%), 관리 부실 6.4건(7.1%) 순

【최근 5년('11~'15년)간 사고 원인별 발생 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 스키장사고

- 최근 5년간('11/12년~'15/16년) 연평균 5,726,920명이 스키장을 이용하였으며, 연평균 10,141명의 부상자 발생

※ 스키장 운영개소 : 11/12~12/13시즌 17개소, 13/14~15/16시즌 1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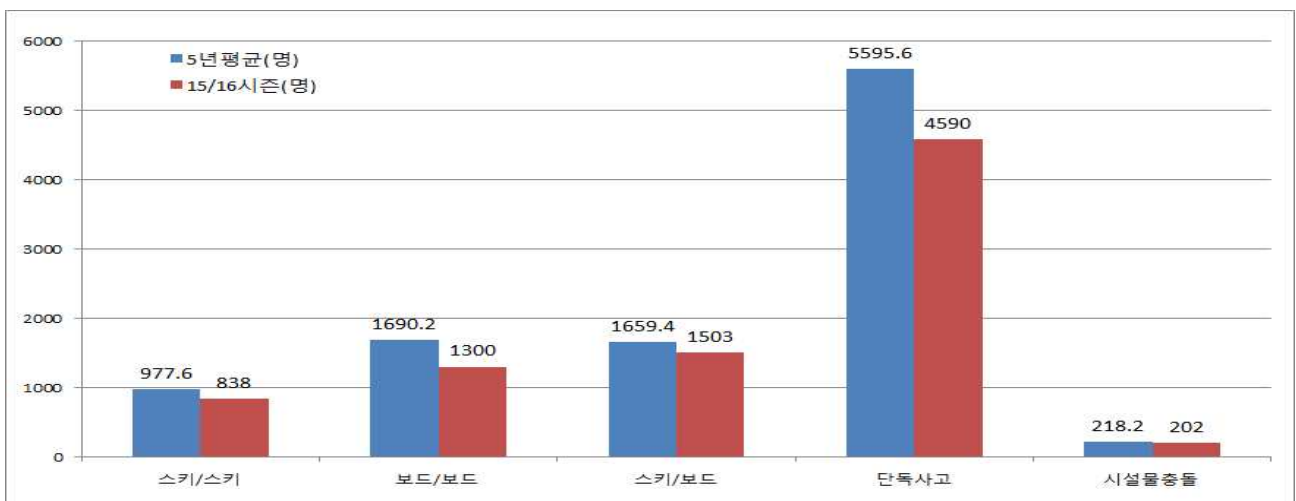
【최근 5년(11/13~14/15)간 이용객 및 부상자 현황 - 한국스키장경영협회】



- 최근 5년간(12/13~14/15시즌)간 사고 유형별로는 혼자 넘어지는 단독 사고가 연평균 5,595명(55.2%)으로 가장 많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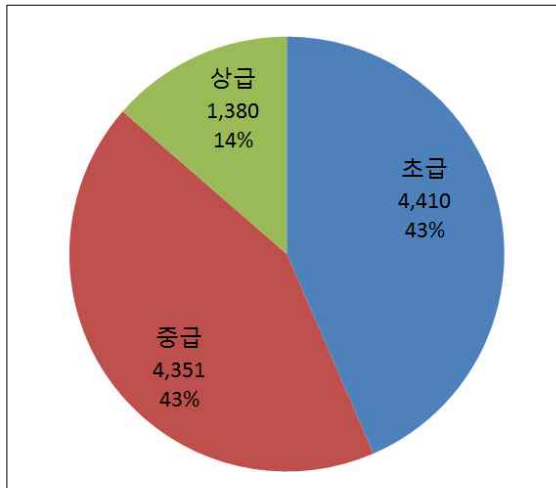
- 스노보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스노보드 간 충돌이 연평균 1,690명(16.7%)이었으며, 스키와 보드간 충돌이 1,659명(16.4%) 순
- 사고원인별로는 개인부주의가 6,300명(62.1%)로 가장 많았으며 과속 2,311명(22.8%) 기타 1,529명(15%)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11/13~15/16)간 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 한국스키장경영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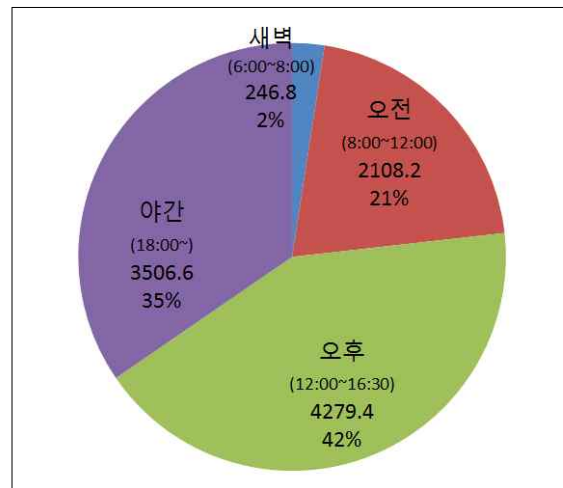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장소별로는 초급코스에서 연평균 4,410명(43%)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중급코스에서 4,351명(43%), 상급코스에서 1,380명(14%)순임
- 시간대별로는 오후에 4,279명(42%), 야간·심야에 3,506명(35%) 오전에 2,108명(21%) 순으로 발생함

【최근 5년 코스별 사고현황(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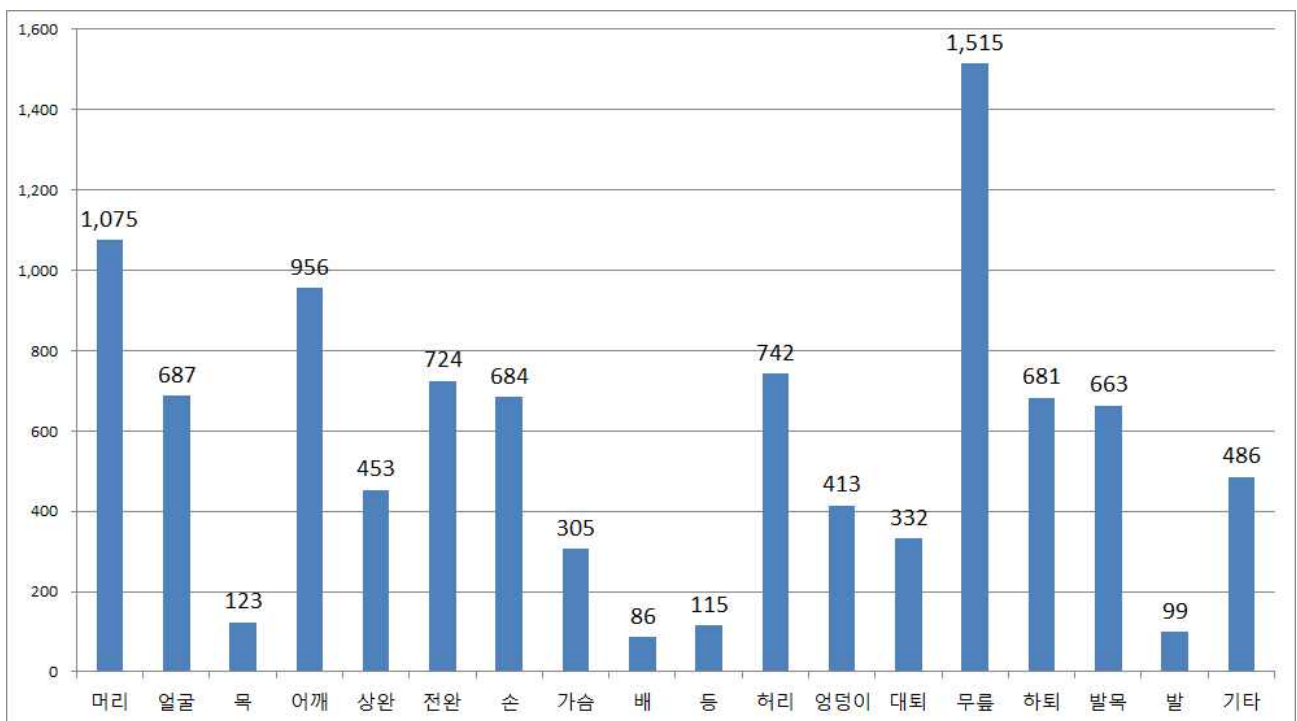


【최근 5년 시간별 사고현황(연평균)】



- 최근 3년간 부상부위별로는 무릎이 1,515명(14.9%)으로 가장 높았으며 머리 1,075명(10.6%), 어깨 956명(9.4%) 등 순으로 나타남
- 부상유형별로는 타박상이 3,963명(39.1%)로 가장 많았고, 염좌 2,363명(23.3%), 골절 1,582명(15.6%)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11/13~15/16)간 사고 부위별 부상자 현황 - 한국스키장경영협회】



3. 소방활동

기온 급강하로 인한 난방·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재래 시장·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대형화재 발생이 우려됨

가. 화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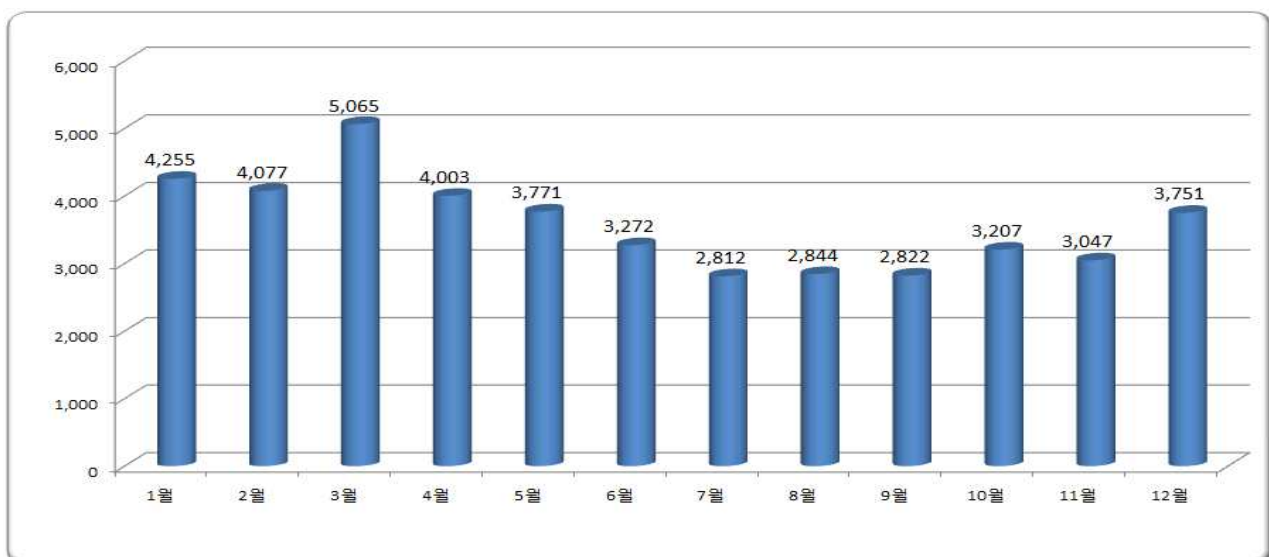
□ 현 황

- 최근 5년('11~'15년)간 전국적으로 총 214,62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0,539명(사망 1,415, 부상 9,124)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5년('11~'15년)간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재산피해(억원)
		소계	사 망	부 상	
합계	214,626	10,539	1,415	9,124	18,291
2011	43,875	1,861	263	1,598	2,565
2012	43,249	2,223	267	1,956	2,895
2013	40,932	2,184	307	1,877	4,345
2014	42,135	2,181	325	1,856	4,054
2015	44,435	2,090	253	1,837	4,432

【최근 5년('11~'15년)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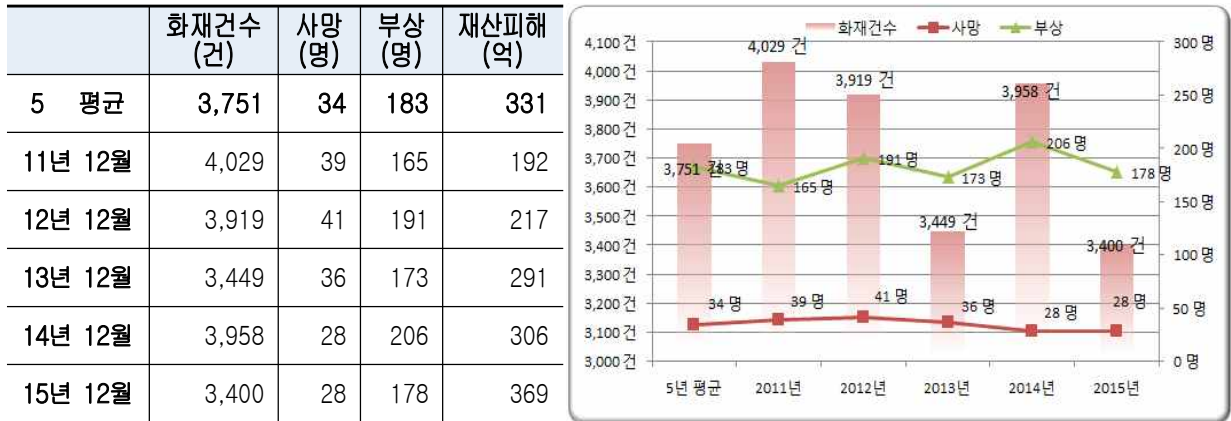


□ 분 석

○ 최근 5년('11~'15년)간 12월 중 평균 3,751건(총 18,755건)의 화재 발생, 평균 34명(총 172명)이 사망하고 331억원(총 1,65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2월 중 1일 평균 화재는 125건, 사망 1.15명, 재산피해 6.1억원

【 최근 5년('11~'15)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최근 5년간 12월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 1,108건(29.5%), 야외(소각 등) 663건(17.7%), 자동차 438건(11.7%), 공장창고 398건(10.6%) 순으로 발생

【 최근 5년('11~'15)간 12월 화재발생장소별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분	계	주택 (공동)	야외 (소각등)	자동차	공장창고	음식점 서비스	사무판매	기타 건축물	동식물 시설	기타
(평균)	3,751	1,108	663	438	398	360	243	212	111	218
비율(%)	100	29.5	17.7	11.7	10.6	9.6	6.5	5.7	3.0	5.7

○ 최근 5년간 12월 화재(3,751건) 발생원인은 부주의 1,671건(44.5%), 전기적 요인 948건(25.3%), 기계적요인 436건(11.6%) 순

- 부주의에 의한 화재(1,671건)는 담배꽂초 452건(27.1%), 불꽃 방치 320건(19.2%), 음식물 조리중 261건(15.6%), 가연물 근접방치 146건(8.7%) 등 순

【 최근 5년('11~'15)간 12월 화재 발생원인별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의심	교통 사고	방화	화학적	가스 누출	자연적	미상	기타 (실화)
건수(평균)	3,751	1,671	948	436	78	50	36	23	22	5	387	95
비율(%)	100	44.5	25.3	11.6	2.1	1.3	1.0	0.6	0.6	0.1	10.3	2.6

나. 구조 통계 분석

○ 최근 5년('11~'15년)간 총 20,754백건의 구조활동으로 5,446백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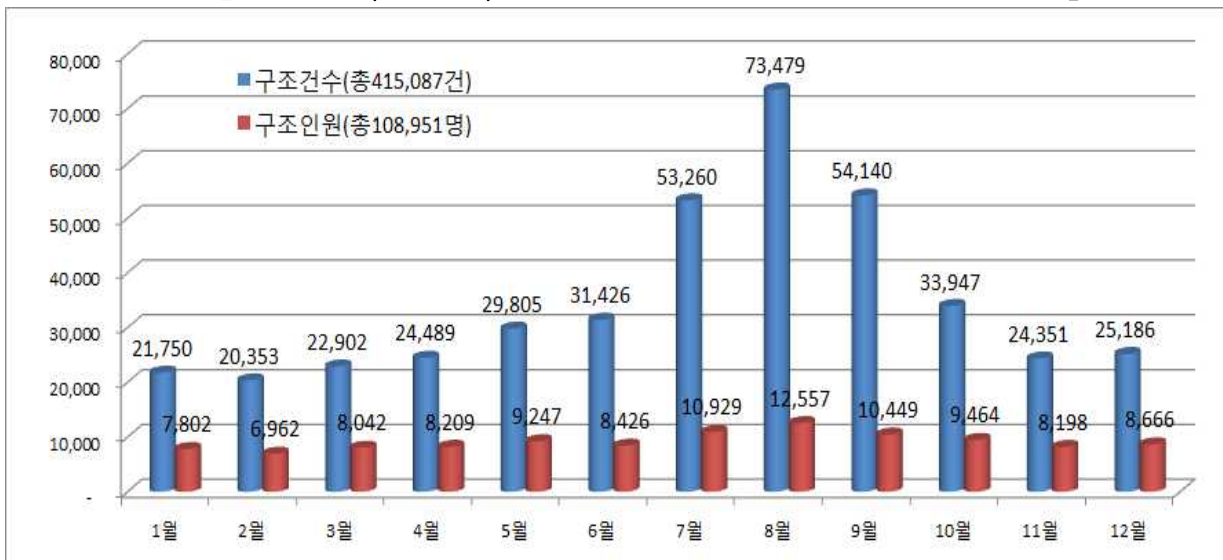
【 최근 5년('11~'15년)간 구조활동 현황 - 소방구조통계 】

	(단위:백)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백건)	20,754	1,088	1,017	1,145	1,224	1,491	1,571	2,662	3,674	2,707	1,697	1,217	1,260
	인원(백명)	5,446	390	348	402	411	462	421	547	627	522	473	411	432
15년	건수(백건)	4,797	225	235	299	295	368	360	546	766	700	420	294	289
	인원(백명)	1,203	78	74	93	87	98	84	110	148	141	113	89	88
14년	건수(백건)	4,511	222	204	243	263	346	353	655	782	531	358	266	287
	인원(백명)	1,150	86	71	85	85	106	86	114	128	104	99	90	96
13년	건수(백건)	4,001	254	212	233	231	284	307	434	651	543	365	247	239
	인원(백명)	1,101	81	67	82	76	87	85	116	130	101	103	89	84
12년	건수(백건)	4,277	189	196	193	247	274	319	702	910	474	300	217	256
	인원(백명)	985	72	69	69	78	84	88	95	108	78	80	72	93
11년	건수(백건)	3,168	198	170	177	188	219	232	325	565	459	254	193	189
	인원(백명)	1,007	73	67	73	85	87	78	112	113	98	78	71	71

○ 최근 5년('11~'15년)간 연평균 구조활동 : 415,087건 / 108,951명 구조

- 12월 평균 구조활동은 25,186건(6.0%)으로 8,666명(8.0%) 구조
- 12월 구조활동 건수는 전월에 비해 3.4%(835건) 증가, 구조인원은 전월보다 5.7%(467명) 증가

【 최근 5년('11~'15)간 월평균 구조활동 현황 - 소방구조통계 】



다. 구급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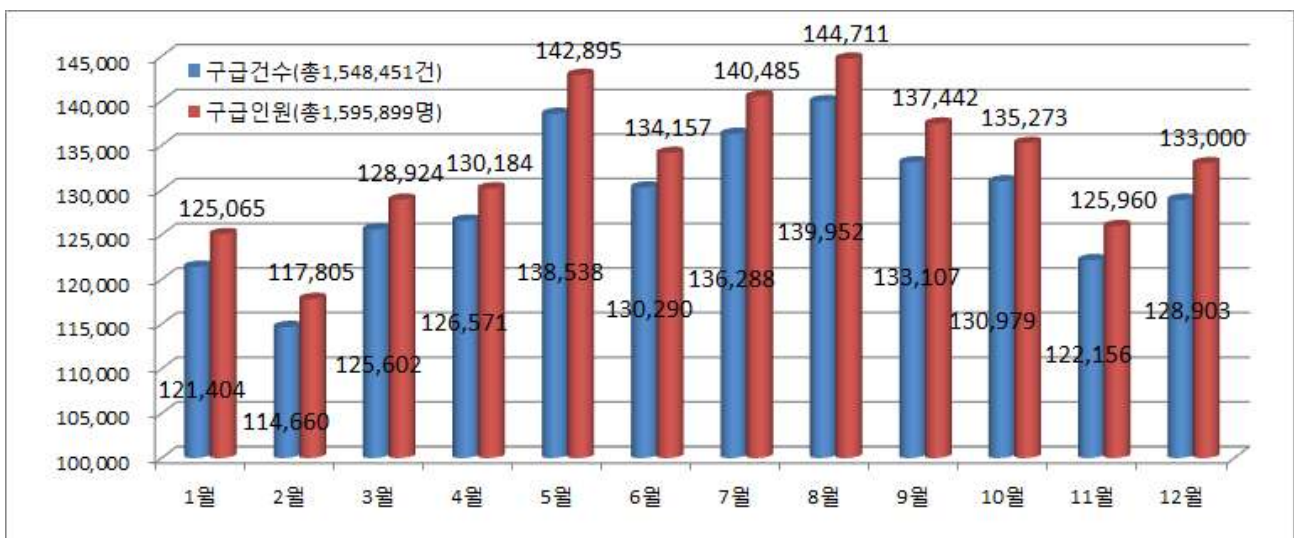
○ 최근 5년('11~'15년)간 총 7,745천건의 구급출동으로 총 7,979천명 긴급이송

【 최근 5년('11~'15년)간 구급활동 현황 - 소방구급통계 】

(단위:천)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천건)	7,745	607	573	628	634	694	651	682	700	665	655	612	644
인원(천명)	7,979	626	590	645	651	714	670	702	725	686	677	628	665
15년													
건수(천건)	1,707	133	129	145	143	153	134	147	155	149	146	135	138
인원(천명)	1,755	137	133	148	146	157	137	151	160	154	151	139	142
14년													
건수(천건)	1,632	121	117	131	130	146	138	144	147	142	139	133	144
인원(천명)	1,679	125	120	134	134	150	142	148	152	146	144	136	148
13년													
건수(천건)	1,505	121	111	121	120	133	131	133	137	129	127	119	123
인원(천명)	1,549	124	114	125	123	137	134	137	142	133	131	122	127
12년													
건수(천건)	1,494	115	113	118	124	135	128	132	133	126	127	114	129
인원(천명)	1,543	119	117	122	128	139	132	136	138	130	131	117	134
11년													
건수(천건)	1,407	117	103	113	117	127	120	126	128	119	116	111	110
인원(천명)	1,453	121	106	116	120	131	125	130	133	123	120	114	114

- 최근 5년('11~'15년)간 연평균 구급활동 : 1,548,451건 / 1,595,899명 이송
- 12월 평균 구급활동 128,903건(8.1%)으로 133,000명(8.3%) 이송
 - 12월 구급활동 건수는 전월보다 5.5%(6,747건) 증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전월보다 5.6%(7,040명) 감소

【 최근 5년('11~'15)간 월평균 구급활동 현황 - 소방구급통계 】



4. 해양경비안전활동

가. 중국어선 단속 현황

- (허가수역) 10월 중순부터 중국 저인망어선 조업척수 증가, 12월까지 일일 4~500여척이 허가수역內 조업 전망('16. 1~11월 日평균 177척 조업)

【최근 3년('13~'15년)간 중국어선 조업현황(해양경비안전국)】

	해역	계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수역	77,175	13,482	3,651	1,092	3,575	2,522	-	-	698	6,740	10,828	16,202	18,385
	NLL	54,886	847	306	1,321	8,283	10,539	9,544	2,851	910	6,701	7,154	4,346	2,084
'14	우리수역	81,978	10,112	2,399	1,355	6,444	4,826	-	-	2,067	6,399	11,259	19,709	17,408
	NLL북한수역	44,969	439	325	1,986	5,639	7,243	7,041	2,372	1,342	6,659	5,568	4,536	1,819
'13	우리수역	80,412	13,069	3,318	4,399	3,880	3,622	-	-	197	5,621	10,374	17,051	18,881
	NLL북한수역	33,499	495	204	667	3,491	7,570	6,248	1,674	1,135	3,437	4,418	3,079	1,081
'13~'15년 (우리수역)		239,565	36,663	9,368	6,846	13,899	10,970	-	-	2,962	18,760	32,461	52,962	54,674
비율		100%	15%	4%	3%	6%	5%	0%	0%	1%	8%	13%	22%	23%

* 3년 중국어선 총 조업척수 변화 : '13년 80천여척 → '14년 81천여척 → '15년 77천여척

- (NLL북한수역) 꽃게성어기(~11월)가 끝나감에 따라 NLL해역은 12월부터 100척 이하로 감소 전망('14년은 11.30일부터, '15년은 12.5일부터 100척 이하 감소)

【최근 3년('13~'15년)간 NLL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일평균) 현황(해양경비안전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27	13	51	276	340	318	92	29	223	237	145	67
'14년	15	12	64	188	234	235	77	43	222	179	151	59
'13년	16	7	22	116	244	208	54	36	114	142	103	35
'13~'15년 (3년평균)	19	11	46	193	273	254	74	36	186	186	133	54
비율	1%	1%	3%	13%	19%	17%	5%	2%	13%	13%	9%	4%

최근 3년('13~'1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분	나포 (척)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비고 (NLL)	구 속		담보금
		계	무허가	제한 조건 등			척수	인원	
'15년	568	557	109	448	11	25	71	114	264억 4,900만원
'14년	341	317	85	232	24	25	36	75	189억 9,000만원
'13년	487	453	149	304	34	40	81	183	244억 1,750만원
계	1,396	1,327	343	984	69	90	188	372	

○ 최근 3년간 나포척수는 지역별로 목포 742척(53.2%), 제주 259척(18.6%), 인천, 군산 등 순

【최근 3년('13~'15년)간 지역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15년	568	36	-	39	42	278	144	29	-
'14년	341	34	1	23	34	167	59	23	-
'13년	487	42	-	42	32	297	56	18	-
계	1,396	112	1	104	108	742	259	70	0
비율	100%	8.0%	0.1%	7.4%	7.7%	53.2%	18.6%	5.0%	0%

○ 선적항별로는 요녕성 687척(49.2%), 산둥성 443척(31.7%), 절강성 113척(8.1%) 등 순임

【최근 3년('13~'15년)간 선적항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산둥성	요녕성	절강성	기 타
'15년	568	146	309	51	62
'14년	341	123	152	18	48
'13년	487	174	226	44	43
계	1,396	443	687	113	153
비 율	100%	31.7%	49.2%	8.1%	11%

- 업종별로는 저인망어선 875척(62.6%), 유자망 393척(28.2%), 기타 운반선 128척(9.2%) 등 순

【최근 3년('13~'15년)간 업종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분	계	저인망	유자망	기타 운반선 등
'15년	568	344	169	55
'14년	341	226	83	32
'13년	487	305	141	41
계	1,396	875	393	128
비율	100%	62.6%	28.2%	9.2%

- 최근 3년('13 ~ '15년)간 12월 중 나포 현황은 251척으로 성어기로 접어들면서 나포건수 증가

【최근 3년('13~'15년)간 월별 중국어선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568	64	35	23	48	29	9	-	7	55	104	82	112
'14년	341	35	11	19	14	14	6	-	4	20	41	90	87
'13년	487	83	28	22	48	48	5	1	5	26	85	84	52
계	1,396	182	74	64	110	91	20	1	16	101	230	256	251
비율(%)	100%	13%	5.3%	4.6%	7.9%	6.5%	1.4%	0.1%	1.1%	7.2%	16.5%	18%	18%

나. 선박사고 현황

최근 3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5,210척(37,978명)이 발생하여 선박 5,004척(96%) 및 승선원 37,314명(98.3%)이 구조되고, 선박 206척(4%) 구조불능 및 승선원 664명(1.7%) 사망(522)·실종(142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 최근 3년('13~'15년)간 선박사고는 평균 1,736척 / 12,659명 발생

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5,210	37,978	5,004	37,314	206	664	522	142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7	485	397	88
2013년	1,052	7,963	1,014	7,896	38	67	48	19

3년 간 12월 중 유형별 사고현황은 기관손상 112척(24.9%), 충돌·접촉 98척(21.8%), 화재·폭발 40척(8.9%), 침수 28척(6.2%) 등의 순으로 발생

	계	기관 손상	충돌 접촉	화재 폭발	침수	좌초	추진기 손상	키손상	전복	침몰	기타
계	449	112	98	40	28	27	21	14	8	4	97
'15년	238	78	58	17	12	5	10	4	1	1	52
'14년	158	28	20	19	16	9	6	7	6	3	44
'13년	53	6	20	4	-	13	5	3	1	-	1

○ 최근 3년 간 12월 중 선종별 사고 현황은 어선 282척(62.8%), 화물선 35척(7.8%) 낚시어선 30척(6.7%), 레저선박 28척(6.2%) 등의 순으로 발생

구분	계	어선	화물선	낚시 어선	레저 선박	예부선	유조선	여객선	유도선	기타
계	449	282	35	30	28	22	12	9	4	27
'15년	238	147	17	21	17	9	5	7	-	15
'14년	158	105	12	7	9	8	1	2	3	11
'13년	53	30	6	2	2	5	6	-	1	1

다. 연안사고 현황

○ 최근 3년간('13~'15년) 2,874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하여 391명 사망

-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를 중심으로 발생

	건 (사망)	갯바위	갯벌	해안가	방파제	항포구	해상	기타
계	2,874 (391)	333 (22)	117 (24)	1,194(87)	259 (27)	333 (62)	553 (131)	85 (38)
'15년	1,114 (145)	150 (9)	52 (10)	439 (25)	128 (9)	146 (28)	176 (35)	23 (29)
'14년	747 (113)	85 (9)	35 (8)	327 (33)	61 (12)	96 (20)	111 (25)	32 (6)
'13년	1,013 (133)	98 (4)	30 (6)	428 (29)	70 (6)	91 (14)	266 (71)	30 (3)

○ 사고 유형으로 익수가 전체 34%(989건) 차지, 표류·고립·추락 순으로 발생

	건 (사망)	익수	추락	고립	표류	기타
	2,874 (391)	989 (191)	476 (128)	523 (11)	720 (4)	166 (57)
'15년	1,114 (145)	401 (81)	208 (41)	219 (5)	245 (1)	41 (17)
'14년	747 (113)	274 (49)	123 (38)	150 (3)	134 (1)	66 (22)
'13년	1,013 (133)	314 (61)	145 (49)	154 (3)	341 (2)	59 (18)

○ 최근 3년 12월에 갯바위·항포구를 중심으로 총 94건 발생 18명 사망

구분	발생 (사망)	갯바위	갯벌	해안가	방파제	항포구	해양	기타
계	94 (18)	14 (0)	3 (1)	10 (0)	19 (2)	26 (7)	19 (8)	3 (0)
'15년	50 (11)	9 (0)	2 (0)	7 (0)	10 (1)	15 (6)	7 (4)	0 (0)
'14년	29 (5)	1 (0)	0 (0)	3 (0)	7 (1)	8 (1)	9 (3)	1 (0)
'13년	15 (2)	4 (0)	1 (1)	0 (0)	2 (0)	3 (0)	3 (1)	2 (0)

○ 최근 3년간 12월 중 사고 유형별 발생건수는 익수(36%), 추락(30%), 고립(23%) 순으로 발생

구분	발생 (사망)	익수	추락	고립	표류	기타
계	94 (18)	34 (11)	28 (5)	22 (1)	3 (0)	7 (1)
'15년	50 (11)	17 (6)	20 (5)	12 (0)	1 (0)	0
'14년	29 (5)	13 (4)	5 (0)	4 (0)	2 (0)	5 (1)
'13년	15 (2)	4 (1)	3 (0)	6 (1)	0 (0)	2 (0)

1. 경남 밀양시 「마그네슘 공장」 화재

일 시 : 2016. 11. 11.(금) 09:57 ~ (진화 중)

* 선착대 : 삼랑진119안전센터 7km(11분) 및 본서(밀양) 20km(21분)

○ 장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산업 1층』

○ 원 인 : 용접작업 중 불티 발화

○ 인명피해 : 사상 4명(사망1, 부상 3) / 재산피해 : 250백만원

* 공장동 등 4개동 1,173㎡ · 차량 3대 · 마그네슘 등 50톤 소실

○ 동원소방력 : 5개 관서, 인원 140명, 장비 23대



2. 대구 중구 「서문시장」 화재

○ 일 시 : 2016. 11. 30.(수) 02:08

○ 장 소 :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4지구(점포 839)

○ 건물구조 : RC 스라브 4/1층 연면적 15,386㎡

* 층별 : (지하) 주차장, (1층) 약세시라·원단, (2층) 침구·한복, (3층) 의류판매점, (4층) 사무실 등

* 소방시설 : 소화 51, 옥소 19, SP 1,336, 포소화 175, 자탐 143, 비상방송 1, 유도 49, 피난계단 16개

○ 원 인 : 조사 중(국과수 및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예정)

○ 인명피해 : 경상 2명(소방관 2명) / 재산피해 : 조사 중

○ 동원소방력 : 인원 870명(소방 400, 의소대 250, 봉사단 20, 기타 200)

장비 99대(펌프 60, 탱크 23, 헬기 2, 기타 14)



1. 서해대교 화재

○ 일시 : 2015. 12. 03.(목) 18:12 ~ 21:43(완진)

※ 선착대 :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 14km(18:34) 및 본서 43km(19:11)

○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서해대교-목포방향』

○ 구조 : 콘크리트 사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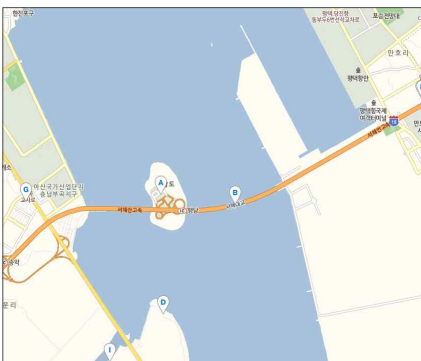
※ 서해대교 : 총 7,310m, 왕복 6차선, 주탑 높이 182m(교량상판에서 121m)

※ 케이블구조 : 지름 280mm, 91가닥 강선, 왁스코팅/프라스틱 피복, 케이블 수 총 72개

○ 원인 : 낙뢰로 인한 전기화재

※ 서해대교 주탑 상단 케이블(교량상판에서 80m위치)에서 화재 발생, 케이블 1개가 절단되어 추락하는 케이블에 맞아 현장진압대원 3명 부상 발생

○ 피해상황 : 인명피해 3명(사망 1, 경상 2), 재산피해 2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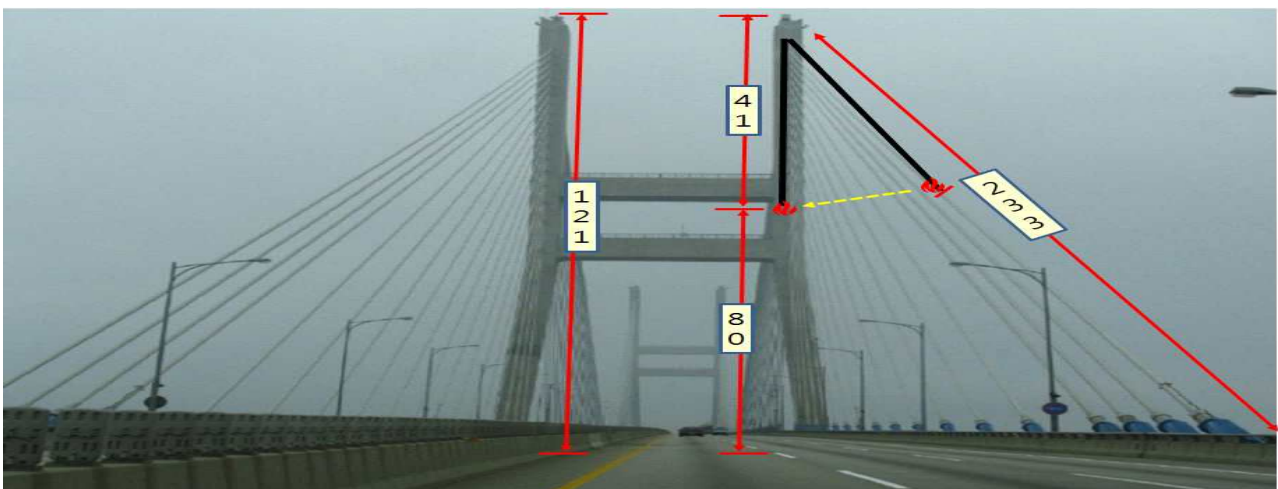
치 도



현장 전경



현장 사진



2. 대구 성서공단 가스유출 사고

○ 일 시 : 2014. 12. 10.(수) 12:23경

○ 장 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도금 사업협동조합』

※ 6개 업체(경남도금, 경남전착, 톡텍, 대원산업 3개), 60~70여명 종사

○ 원 인 : 탱크로리로 운반된 차아염소산나트륨(폐수처리용)을 옥상에 설치된 차아염소산 탱크가 아닌 황산탱크(5ton/1ton)에 오인 주입 (약 100ℓ)하면서 염소가스 발생

○ 인명피해 : 50명 경상(인도네시아 5명 포함)

※ 염소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워 비산되지 않고 작업장으로 내려와 인명피해 다수 발생

3. 인천 계양구 복합건물(○○ 마사지) 화재

○ 일 시 : 2015. 12. 06.(일) 01:44 ~ 01:58(초진), 02:07(완진)

※ 선착대 : 작전119안전센터 0.5km (2분) 및 본서(계양) 0.5km (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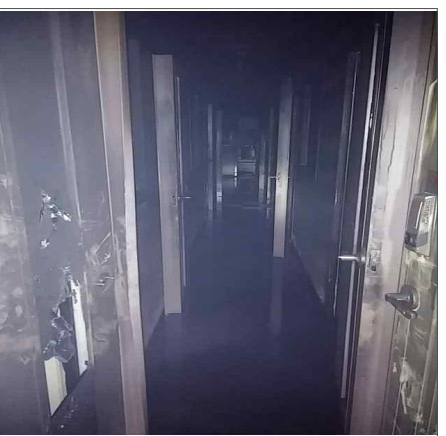
○ 장 소 : 인천 계양구 용중동 『○○프라자(복합건물)』

○ 건물구조 : 양식 철콘조 슬라브가 6/1층 연면적 6,986㎡

※ 층별현황 : 지하1층(주차장), 1~4층(노래방, 당구장, 식당, 생맥주), 5층(마사지샵 11실), 6층(고시원 18실)

○ 피해현황 : 인명피해 4명(사망 3, 중상 1), 재산피해 42백만원

※ 5층 173㎡ 소실 및 5~6층 200㎡ 그을림 / 집기류 등 소실

		
치 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4. 원양어선 501 오룽호 베링해 침몰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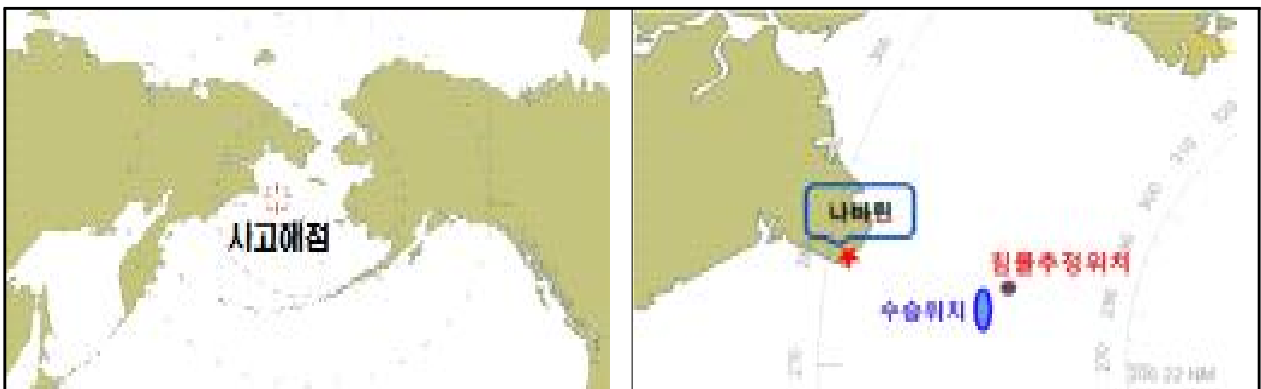
- 일 시 : 2014. 12. 1.(월) 14:00경
- 장 소 : 러시아 베링해 해상(나바린 동방 120해리)
- 원 인 : 기상불량으로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어창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기울어 전복·침몰 추정

< >

우리 국적 원양어선 501 오룽호가 12. 1. 14시경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 인접국 수색 및 구조세력 파견 수색활동 전개

* 사고선박 제원 : 총톤수(1,753톤), 선적(부산), 선령('78년 건조), 승선원(60명<한국 11>)

- 피해현황 : 인명피해 60명(사망 27명, 실종 26명), 선체 침몰
- 경비함정 수색 투입
 - 인원 및 장비 : 동해본부 5001함, 펜더헬기 1대, 특수구조단 등 인력 73명
- 주요 조치사항 경비함정 수색 투입
 - 해경본부 위성조난신호 접수, 남해본부 사고 사실 확인
 - 러시아 구조본부(RCC) 구조요청 및 B·H, 유관기관 상황 전파
 - 미국 구조본부 협조 요청/미·러 구조함정, 항공기 사고해역 집중 수색
 - 한·러 어선 동원 사고 해점 인근 실종자 집중 수색
 - 경비함정 5001함 사고해역 투입, 합동수색 실시
- 사고 해역도



1. 강풍특보 시 행동요령

- 간판 등의 낙하물과 가로수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합니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 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커지므로,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유리창 파손 시 흩날림 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에 비산 방지용 안전필름을 붙입니다.

2. 풍랑특보 시 행동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니다.
-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습니다.
- 항해 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합니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합니다.
-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합니다.

3. 대설 대비 행동요령

□ 가정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운다.
- 낡은 가옥은 안전 점검을 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직장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한다.
- 출 · 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수단을 이용한다.
- 직장 주변의 눈은 그 직장 직원이 치운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농촌산간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으로 보호한다.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 비닐 찢기 작업 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한다.
- 비닐하우스에 친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줄인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낸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해안

- 각종 선박 등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를 한다.
- 수산 증·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한다.
-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 해안 접근을 막는다.
- 해안도로 운행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안전장구 부착 후 통행한다.

□ 보행자

-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간다.
-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지 않는다

□ 대설로 인한 차량 고립 시

- 출발 전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 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기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한다.
-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한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킨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 차량 히터 작동 시에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둔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한다.
- 잠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자되 한 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핀다.
- 제설 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는다.

4. 가스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 평상 시 안전관리

- 사용 전 주의사항 : 환기
 - 가스 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 사용 중 주의사항 : 불꽃 확인
 - 점화 시에는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가스사용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 사용 후 주의사항 : 밸브 잠금
 -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모두 잠가야 한다.
- 평상시 누설점검
 -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이사철 안전관리

- 이사할 곳의 가스 종류가 LPG인지 도시가스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기왕에 사용하던 가스와 다를 경우에는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열량 변경작업을 해야 한다.
- LPG는 해당 판매업소,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가스 시설 철거와 설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특히,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막음 조치가 필요하다. 가스배관을 가정용 테이프 등으로 허술하게 마감할 때, 가스 누출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막음 조치를 받아야 안전하다.

□ 겨울철 안전관리

- 겨울철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원인은 보일러를 환기 불량한 장소 등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설치 불량, 배기관 연결부 이탈 등으로 인해 폐가스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철저한 보일러 시설 점검과 환기로 가스 사고를 예방 한다.
- 보일러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보일러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보일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배기관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 지, 배기관 안에 새집 등 이물질은 없는지 꼭 확인한다.
-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꼭 열어 두어야 한다.

□ 휴가철 안전관리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연소기의 마개(꼭)는 물론 반드시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밸브)까지 잠가 두어야 한다. 또한, 휴가를 떠난다는 사실을 이웃집에 알려 태풍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집에 돌아와 가스시설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시설의 연결 부분을 점검액(비눗물)을 이용하여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태풍이나 폭염에 가스시설이 악영향(손상)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음식을 조리할 때,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 때문에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부탄 캔 장착(접속)상태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반드시 부탄 캔을 분리시켜 보관하고, 다 쓴 부탄 캔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실외에서 구멍을 낸 후 화기가 없는 곳에 버리도록 한다.

5. 승강기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 에스컬레이터

-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한다.
-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한다.
-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수레 등은 신지 말아야 한다.
-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 엘리베이터

- 정원과 적재하중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 내의 행선 층의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 하여야 한다.
-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 구조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될 수 있으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애완동물은 안고 탑승한다.
-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화재가 난 때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한다.

승강기 사고 등 비상시 대처요령

□ 에스컬레이터

- 사고가 나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상·하부 승강장에 있는 비상 정지 버튼(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한다.
-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고 신체의 일부가 틈새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빼낸다. 필요하면 전문기술자나 119구조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을 눌러 갇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나 119로 구출요청 전화를 해야 하며, 큰소리로 외부에 알려야 한다.
- 갇혀 있어도 추락이나 질식할 위험이 없음으로 스스로 탈출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술자나 119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6. 스키장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리프트 이용방법

□ 타기

- 초심자는 부담 없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앞 사람이 승차를 끝낸 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
- 리프트를 탈 때는 한손을 뒤로 내밀어 리프트를 확인 후 깊게 앉는다.
- 폴을 옆으로 해서 무릎에 놓으며, 2~4인승 리프트의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폴을 손으로 잡는다.
- 리프트 승차 후, 이동 중에는 의자를 흔들거나 스키를 버둥거리는 행위를 삼가 한다.

- 1인승 리프트 이용 시 옆 방향으로 걸터서 승차하는 경우, 리프트 기둥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바른 자세로 탑승한다.

□ 내리기

- 하차장에 가까워지면 안전표지판의 신호에 따라 안전바를 올리고 스키의 앞쪽을 올리면서 내릴 준비를 한다.
- 하차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스키 앞쪽을 들고 침착하게 내려 직진한다.
- 2~4인승 리프트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뒤에서 오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차 후 신속히 이동하고, 넘어 질 경우 안전요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리프트가 정지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 슬로프 활주 중 주의사항

- 자기의 기량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며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 좁은 코스로부터 메인 코스로 합류할 때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단 정지한다.
- 넘어지면 신속히 일어선 후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충돌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 바인딩이 풀리면 코스의 가장자리로 이동 후 스키를 다시 착용한다.
- 활주 중에 쉴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 슬로프 표식의 지시사항이나 패트롤의 지시에 잘 따른다.
- 항상 다른 스키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탄다.
- 안전모를 착용한다.

스키장 안전수칙

- 준비운동은 반드시 한다.
- 바인딩의 조임 강도는 자신에게 알맞게 조정한다.
- 리프트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은 탈선,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삼가하고, 정지 시에는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직활강이나 과속, 난폭한 이용은 삼가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소리치거나 미리 넘어져 충돌을 피한다.
- 코스 중앙에서의 급정지, 휴식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코스 가장 자리를 이용한다.
-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보드 타기는 절대 금한다.
- 한번만 더 타고 그만두고자 할 때, 그때 바로 그만둔다. 이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

스키장 안전사고 응급조치

□ 뼈가 부러졌을 때(골절)

- 부위에 맞는 부목을 대고 고정한다.
-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부상부위 근처를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 골절부위가 원위치가 되도록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상하좌우를 파악하여 묶는다.
- 골절부위를 직접 고정하지 않는다. 개방성 골절(복잡골절) 시에는 상처 부위에 소독 거즈를 대고 상부 지혈 후 부목을 하여 신속히 후송한다.

□ 관절이 빠졌을 때(염좌)

- 다친 부위를 안정시킨 후 고정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 부상 후 즉시 눈으로 냉찜질을 한다.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온찜질을 한다.
- 적당한 힘을 가하여 탄력붕대를 감싸준다.

□ 관절이 빠진 상태(탈구)

- 현장에서 탈구에 대하여 복원시키려고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다.
- 스키복을 느슨하게 하여 준다
- 부상자 본인이 가장 편안한 위치에서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법

- 본인의 사고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스키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슬로프에 진입하지 않는다.
- 스키장의 안전관련 방송을 수시로 청취하여 실행한다.
- 스키장의 질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기장판 안전사고 예방요령

-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한다.
- 온도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 장판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장판의 내부온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 전기장판을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라텍스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 시 화재 위험이 크다.
- 않거나 외출 시 플러그를 뽑는다.
- 제품을 사용할 때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기장판은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얹혀 합선(단락) 및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 제품 표면에 물을 쏟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 전기장판 속에 물이 들어가서 전원부에 닿으면 감전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 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말고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8. 갯바위 등 바다낚시 사고예방 요령

-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들물 시간 알람을 설정 미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갯바위 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안전화)을 착용한다.
-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호루라기나 랜턴 등을 휴대하고 체온 보온용으로 담요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려준다.

9. 갯벌 해루질 사고예방 요령

-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진입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폰 등에 알람을 설정하여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갑자기 안개가 끼면 밀물 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온다.
- 갯골을 넘어가지 않는다.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오며, 옆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1. 2016 11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11월01일(화)	첫 한파특보... 모레 오전까지 춥다(KBS)
	강원도 산간지역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 화천 광덕산은 여하 10.3도까지 기온 뚝 떨어져, 서울도 영하 2.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기온 기록
11월02일(수)	경기 미세먼지 11월부터 상승... 2월 최악(국민일보)
	경기도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이번 달부터 높아져 다음 해 5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최근 5년간 도내 미세먼지의 월별 오염도 변화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11월 49 $\mu\text{g}/\text{m}^3$ 로 상승, 12월 57 $\mu\text{g}/\text{m}^3$, 1월 66 $\mu\text{g}/\text{m}^3$, 2월 71 $\mu\text{g}/\text{m}^3$ 로 최고점, 3월 68 $\mu\text{g}/\text{m}^3$, 4월 62 $\mu\text{g}/\text{m}^3$, 5월 66 $\mu\text{g}/\text{m}^3$ 를 기록
11월06일(일)	전남 흑산도 먼 바다서 규모 3.5 지진 발생(SBS)
	6일 오전 6시 26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남남서쪽 106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 올해 호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 바다에서 발생해서 피해는 없어
11월07일(월)	끼어든 차 피하다... 정원 초과 단풍관광버스 전복 4명 숨져(중앙일보)
	6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 분기점 부분에서 이모(55)씨가 몰던 46인승 관광버스가 흰색 NF소나타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 받은 뒤 쓰러져, 승객 이모(75)씨 등 4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11월09일(수)	근로자 구하던 해경 2명, 파도 휩쓸려 사망-실종(동아일보)
	8일 오후 1시14분경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 촛대바위 근처 교량 공사 현장에서 고립된 근로자들을 해경 특공대가 구조하는 과정에서 박권병 순경(30)과 김형욱 경사(38)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긴급출동 한 헬기가 박 순경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먼저 바다에 빠졌던 근로자 임씨도 숨진채 발견, 해경은 경비함정 8척과 헬기를 동원해 실종된 김 경사를 수색 중

11월09일(수)	한파주의보 전국 확대... 내일까지 초겨울 추위(동아일보)
	9일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추위가 절정, 당초 수도권에만 발령됐던 한파주의보는 8일 밤 전국으로 확대, 금요일(11일)쯤 풀리겠다.
11월12일(토)	한밤 터널서 멈춘 KTX... 승객 357명 56분간 갇혀(조선일보)
	10일 밤 11시 18분쯤 동대구~김천구미역 사이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어져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운행이 중단된 채 '대구 제1터널' 안에 약 56분간 갇혔다. 전차선 인근 변전소의 '절연 차단 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단전 된 것으로 보인다(코레일 관계자)
11월14일(월)	충남 보령서 규모 3.5 지진, 시민들 긴급대피(MBC)
	13일 밤 9시 52분, 보령시 일대 북북동쪽 4km 지점, 보령시 화산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 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
11월14일(월)	15~16일 오후 5~7시 '슈퍼문' 뜰 때 인천시 저지대 침수 우려(이데일리)
	인천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이 기간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일명 '슈퍼문'이 뜰 예정으로 바닷물 높이가 최대 994cm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라 침수 피해 대비해 달라고 당부
11월14일(월)	7명 탄 어선 표류하다 구조... 스크류에 페어구 감겨(연합뉴스)
	14일 오전 3시 5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 19.5해리 해상에서 향해 중이던 통영선적 9.77t급 연안통발어선 A호가 스크류에 페어구가 감겨 표류하다 해경에 긴급 구조
11월16일(수)	국내 감염 없던 고병원성 AI 첫 발견(경향신문)
	충남 천안 풍세면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면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국내엔 감염 사례가 없던 'H5N6형'으로 판명, 검출 지점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류예찰지역'으로 지정
11월17일(목)	해남 양계장서 AI 의심신고(동아일보)
	16일 오전 해남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4만여 마리 중 2000여 마리가 폐사해 농장 주인이 AI가 의심된다고 신고, 정밀 검사 결과는 20일경 나와

11월19일(토)	해남 닭·음성 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조선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7개월여만에 또 발병, 16일 AI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남 해남의 닭 농장과 충북 음성의 오리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인 H4N6로 최종 확인, 두 농가에 사육 하던 닭 4만마리와 오리 2만2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이내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긴급방역 등의 조치
11월21일(월)	조류인플루엔자, 서해안 따라 수도권 북상(동아일보)
	충남·북, 전남·북에 이어 경기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해안 철새 도래지 일대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시행 예정
11월24일(목)	무섭게 번지는 AI.. 최대 닭 산지 포천서도 의심신고(동아일보)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포천시 영북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 이 농장에서는 닭 65마리가 폐사, 20일 경기 양주시의 산란계 농장 닭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확진, 경기도는 양주와 포천 농장 등 2곳의 닭 25만3000마리를 도살 처분하기로 결정,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1000마리가 폐사, 22일에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오리농장 2곳에서 AI 의심신고 접수, 농식품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
11월25일(금)	연세대 언더우드家 기념관 화재 '큰일날뻔'(조선일보)
	24일 오전 7시58분쯤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난 불은 오전 10시19분쯤 진화, 진화하던 소방관 팔이 부러지는 부상, 책이나 훈장 등 전시품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11월27일(일)	대전 도심서 10년 만에 규모 2.5 지진(국민일보)
	오전 6시53분께 대전 유성구 남서쪽 3km 지점에서 2.5규모의 지진 발생, 10년 만에 발생한 대전 도심에서의 지진은 2006년 3월19일 규모 2.9와 2.0 지진이 일어난 후 3907일만, 대전소방본부에는 지진 관련 민원이 200여건 접수
11월28일(월)	AI 의심신고 11일만에 100만마리 살처분(조선일보)
	지난 16일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27일까지 살처분한 가축 수는 닭 51만3000두, 오리 48만9000두 등 총 100만 2000두, AI가 서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살처분 숫자는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 커

11월28일(월)	동중국해서 한국어선 뒤집혀 선원4명 실종(매일경제)
	26일 오후 8시28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722km (중국 윈저우 동쪽 220km)에서 29t 규모의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M호가 전복됐다는 신고 접수, 배에는 승선원 10명이 조업 중이었으며 선장 유모씨 등 4명이 실종, 사고 발생 직후 중국 저장성 해상수구중심센터의 5500t급 구조선 1척과 대만 해상구조조정본부 소속 함정 1척 및 헬기 1대, 한국 선적 민간어선 10여 척이 실종자들을 찾아 나섰다.
11월28일(월)	구조 활동 소방헬기서 환자 보호자 추락해 숨져(연합뉴스)
	27일 오후 3시께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 공룡능선 해발 800m 지점에서 발목이 부러진 등산객 김모(49·여)씨를 구조하기 위해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헬기가 출동, 김씨를 들것에 실어 헬기에 태우고, 김씨의 남편 신모(48)씨를 구조대원과 함께 헬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신씨가 20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12시간 만에 숨져
11월30일(수)	오리 최대 사육지 나주도 뚫렸다(경향신문)
	29일 전날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나주시 공산면 한 오리농장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H5형'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 고병원성 바이러스 'H5N6'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 이 농장 오리 2만5000마리를 모두 살처분, 직선거리로 3km안에 있는 닭, 오리농장 7곳 79만 마리, 3~10km이내에 있는 284만 마리의 감염 여부를 살피고 이동 제한
11월30일(수)	대구 서문시장에 큰불... 4지구로 계속 번져(연합뉴스0
	30일 오전 2시 8분께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 불은 상가 내 1지구와 4지구 사이 점포에서 시작, 의류상가가 많이 입점한 4지구의 1층이 모두 탔다. 소방차 97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진화

2. 2015 12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12월1일(화)	가뭄 상시 대응... 4대강 물 끌어오고 가뭄지도 작성(연합뉴스)
	농식품부, 상시적으로 가뭄을 예측해 피해를 줄이고자「농업가뭄지도(저수율, 강우량, 가뭄상황 등)」를 격주로 제작·발표 할 계획
12월1일(화)	'세월호 후속대책' 동해·서해 특수구조대 2일 출범(연합뉴스)
	동해해양특수구조대와 서해해양특수구조대가 2일 각각 목포해양 경비안전서 전용부두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발대식, 동해특수구조대는 '3팀 21명'으로 운영, 서해해양특수구조대는 '3팀 37명'으로 운영
12월2일(수)	'구명조끼 안입고 낚시'...안전불감증 여전(세계일보)
	여수 해양경비안전서, 지난 9월 12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운항 특별단속'을 펼쳐 47건의 불법행위 적발
12월2일(수)	아찔한 어선·보트 음주 운항 "잡아도 끝이 없네"(연합뉴스)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올 한 해 동안 음주 운항 11건을 적발, 2013년 4건, 2014년 6건에 비해 크게 늘어,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강화
12월2일(수)	겨울철 '지붕 눈치우기' 의무화... 마우나리조트 사건 재발 방지(아시아경제)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시설물 관리자는 많은 눈이 내리면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12월1일~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2월3일(목)	창원해경, 마산항 4부두 앞 해상서 60대 인부 구조 (뉴스1)
	물에 빠진 H씨(64)는 마산안전센터 연안구조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마산항 4부두 현장 작업인부이며, 입항중인 카페리 선박 선수 줄 결박작업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2월3일(목)	영도에서 택시 바다에 빠져 1명 숨져 (뉴스1)
	영도구 중리방파제 앞 해상에서 개인택시가 추락해 운전자 이모(50)씨가 숨졌다. 이 날 오전 6시40분께 해녀가 차가 물 속에 있다며 영도경찰서를 경유해 부산해경 상황센터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22구조대와 영도안전센터 순찰차를 급파, 물속에 있던 차에서 이씨를 인양했다.
12월3일(목)	전국 곳곳 함박 눈...신속한 제설로 큰 피해 없어(뉴시스)
	3일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별다른 피해 없어, 치악산·월악산·속리산·지리산·덕유산·오대산 등 6개 국립공원 95개 탐방로 차단, 전국 72개 항로에는 여객선 100척의 운행중단,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581개 노선에 장비 4583대를 동원 제설작업

12월3일(목)	안전정보제공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전국확대(KBS)
	국민안전처, 치안·교통·재난·사고 등 안전정보 165종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달 말부터는 전국 229곳 모든 시·군·구로 확대
12월3일(목)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이달 말 229개 시·군·구로 확대(국민일보)
	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이달 말 부터 229개 시·군·구로 확대, 생활안전지도는 치안, 교통, 재난, 맞춤형안전 등 안전 정보를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2차원이나 3차원 지도형태로 인터넷과 모바일 통해 제공
12월4일(금)	주탑 연결 케이블서 화재 진압 소방관 1명 숨지고 2명 부상(동아일보)
	3일 오후 6시12분경 서해대교 목포 방면 행담도 휴게소 2km전방 2번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 1명 숨져
12월4일(금)	완도해경, 악천후 뚫고 섬 응급환자들 병원 이송(연합뉴스)
	풍랑으로 여객선이 끊긴 전남 완도군 노화도, 청산도 등의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들을 해경 경비함정이 육지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도록 조치
12월4일(금)	국민안전처,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 추진(국민일보)
	안전관련 업무위탁체계 개선방안,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월 확정계획,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중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단체의 위탁을 제한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할 방침
12월5일(토)	용산 대형 찜질방 화재 '경보기 침묵', 300여 명 긴급 대피(MBC)
	새벽 6시15분쯤, 서울 용산에 있는 7층 규모의 대형 찜질방에서 화재, 찜질방 이용객 300여 명 인근 식당으로 긴급대피, 20명은 병원 이송, 경찰 조사결과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고 안내방송조차 없어
12월6일(일)	마사지 업소 화재, 3명 사망 '다닥다닥' 밀실구조가 문제(MBC)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용종동의 한 상가 5층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나 3명 사망
12월6일(일)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서 '우르르'... 5명 부상(KBS)
	오전 11시 반쯤 신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64살 김 모씨가 넘어져 뒤에 서 있던 64살 박모 씨 등이 밀려 함께 넘어지면서 모두 5명이 머리 등을 다쳐
12월7일(월)	대형화재·선박사고도 생계비 지원(머니투데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난달 30일 공포,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 다양한 사회재난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피해 지원기준 마련

12월7일(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영결식 및 서해대교 사고현장 방문(YTN)
	서해대교 화재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영결식에 참석·훈장 추서, 서해대교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철저 당부, 전국 동일 공법교량(사장교)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 강구 지시
12월8일(화)	보건당국, 8일 건국대 호흡기 질환 역학조사 결과 발표(KBS)
	질병관리본부, 지난 10월 5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건국대 호흡기 질환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 역학조사결과(질병특성·전파경로·추정 원인 등) 발표예정
12월8일(화)	삼척 방파제서 근로자 3명 바다에 빠져 1명 숨져(연합뉴스)
	8일 오후 4시 5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남부발전소 방파제 인근에서 방파제 보강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크레인에 달린 작업대가 바닷물에 빠지면서 사고, 박모(61)씨가 숨져
12월8일(화)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연기…승객대피소동(SBS등)
	8일 21시 45분경 지하 2층과 3층 사이 에스컬레이터 가동용 모터가 과열되면서 연기가 나 일부 승객들이 대피하고 30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 신고를 받은 지하철역 관계자가 모터 작동 중단 후 환기작업 실시
12월8일(화)	전국 교량 100곳 긴급 안전점검 나선다... 안전처, 이달 말까지 진단(국민일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전국의 교량 100곳을 골라 안전점검 실태를 확인
12월8일(화)	뉴코아 강남점 화재 진화 완료... 돌보였던 '시민의식'(JTBC)
	8일 오후 서울 강남 뉴코아백화점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 화재경보 사이렌을 들은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 대피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어
12월9일(화)	바다 한복판 구명조끼도 없이...‘술판’된 낚시배(SBS)
	출항과 동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대부분 무시, 심지어 낚시가 끝날 무렵 술판을 벌이는 일부 낚시꾼 등 안전불감증 만연
12월9일(수)	‘뉴코아화재’ 규정 무시... ‘안전불감증’ 현장(KBS)
	용접 및 절단 작업 중 불티가 튀어 일어난 화재가 지난해 천 건 넘게 발생, 작업장 근처에 소화기 및 방화포 미설치 등 대부분 안전규정 미준수
12월9일(수)	건대 폐렴, 방성균 인체감염 첫 사례?(아시아투데이)
	지난 10월 서울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집단폐렴의 원인이 실험실 사료에서 증식한 병원체, '방선균'이 원인이라고 보건 당국이 밝혀

12월9일(월)	국민안전처, 내년 2~4월 안전대진단, 위험시설 20만개 민관합동점검(KBS)
	8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계획' 확정 안전등급 C·D·E시설물, 위험물 관리시설, 캠핑장과 낚시어선 같은 중전 미점검 시설까지 약 20만개 대상, 관리 주체 자체점검 시설도 10% 정도 표본으로 뽑아 재점검
12월9일(월)	대법, 안전사고 처벌강화... 업무상 과실치사 양형기준 마련(YTN)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선고, 가중 요소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 마련
12월10일(목)	119부른 '괴병환자'에 과태료 200만원(서울경제)
	119구급차를 요청했다가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현행보다 두배 인상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12월10일(목)	감염병 전문병원 생긴다(국민일보)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를 통과,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연구 활동도 하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설립근거마련,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유급휴가도 법적으로 가능
12월10일(목)	실적 때문에...'불법 주차' 하는 소방관들(소방방재신문)
	소방관에게 부여된 불법 주차 단속권한이 일부지역에서는 관서평가를 위한 실적 쌓기로 전락, 단속 실적 취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믿기는 어려운 부분
12월11일(금)	전국 7개 특수구조대 모두 출범(조선일보)
	안전처는 지난 3월 "기존 육상 2곳(수도권, 영남) 과 해양 1곳(중앙)에만 있었던 특수구조대를 총 7곳(육상 4, 해상 3으로 늘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재난 현장 도착 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발표, 11일 호남과 충청·강원 권역을 담당하는 119특수구조대 2곳 발대식으로 7개 특수구조대 체계가 완성
12월11일(금)	'온난화 영향' 남해안 수온 16년새 1.3도 올라(12.11, KBS 등)
	국립해양조사원, 2000년 3월부터 올해까지 매년 남해안 수온 관측 결과, 최대 1.3도 올라... 지구 온난화로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난류의 수온이 올랐기 때문
12월12일(토)	서울역 고가도로 13일부터 폐쇄, 우회로 이용해야(YTN)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13일 0시부터 차량통행 전면금지, 만리재로~ 퇴계로 구간 운전자들은 우회도로 이용

12월12일(토)	서해대교 화재 원인 낙뢰설 무게...‘아크 흔’ 여부 주목(연합뉴스)
	국민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현장 감식 결과 아크흔(Arc痕)*이라 불리는 전기 화재 특유의 흔적과 유사한 무늬가 케이블에서 나타나 '낙뢰설'에 무게, 아크흔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 분석 시행,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 전망 * 합선처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선이 녹으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원형 흔적
12월12일(토)	복합건물 화재..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참사 피했다(12.12, YTN)
	1일 저녁 발생한 화재는 여러면에서 올해 초 5명이 사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비슷했으나, 소방대원들이 신고 5분만에 출동·화재 진화 및 건물 안의 사람들 차분히 대피 시켜… 방화문 작동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도 참사를 막은 한 원인
12월13일(일)	무등산 리프트 추락 추정 원인은 '장비불량(연합뉴스)
	12일 발생한 광주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 탑승객 추락사고 추정 원인은 리프트와 와이어를 연결하는 조임 장치가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12월13일(일)	만취 상태로 바다에 빠진 50대 구조 (뉴시스)
	부산 사하구 다대활어위판장 앞 해상에서 A(56)씨가 물에 빠진 것을 인근 어선의 선장이 발견해 부산해경안전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다대안전센터 직원으로 현장으로 보내 곧바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13일(일)	울산해경, 서생 장군바위서 30대 낚시객 구조 (뉴시스)
	낚시를 하기 위해 나사항 인근 하얀 등대 앞 장군바위에 걸어 들어갔다가 만조시간대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고 너울성 파도로 인해 고립
12월14일(월)	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22일 서울서 첫 개최(KBS)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EEZ 중첩수역의 경계를 나누기 위하여 서울에서 제1차'한·중 해양 경계 확정' 공식회담 개최, 외교부 2차관·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 국 수석대표로 참석
12월14일(월)	종합병원 한밤 화재 소동... 183명 환자 대피(SBS)
	14일 새벽 거제 대우병원 지하창고에서 화재발생, 간호사 등의 안내에 따라 환자 183명 무사히 대피
12월14일(월)	안전처, 생활안전지도 권역별 사전설명회 실시(뉴스1)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공모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유관기관·교육청,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 수도권 15일, 중부권 16일, 남부권 17일

12월15일(화)	서해대교 19일 통행 재개(조선일보)
	지난 3일 케이블 절단사고로 통행이 전면 차단 된 서해대교가 오는 19일 조기 개통
12월15일(화)	'기습 한파' 내일 서울 -3도... 추위 언제까지?(KBS)
	16일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서해안에 최고 8cm의 눈도 예상, 강원도 철원이 영하 6도, 내륙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12월15일(화)	서울역 고가 폐쇄 첫 출근 길..11분 걸리던 길, 30분 걸렸다(서울신문)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를 출발해 퇴계로 남대문시장 방면으로 가는 길(3km)은 30분이 걸렸다. 지난 13일 0시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되기 전 고가도로를 통과할 때 걸린 평균 11분 18초(평일 오전 7~9시 평균시간) 보다 3배 가까이 소요
12월15일(화)	'겨울철 화재 막자' 안전처,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SBS)
	안전처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해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겨울철 화재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할 계획
12월15일(화)	마음이 더 뜨거운 '올해의 영웅 소방관'(아시아투데이)
	올해의 최고 영웅소방관에 충남 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 소속 배기만 소방경이 선정, 에쓰오일은 15일 서울 용산소방서 대강당에서 '2015 소방 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의 영웅 소방관' 8명에게 표창장과 상금 9000만원 수여
12월15일(수)	해양 기동전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연합뉴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형 경비함정 등 함정 5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이 지난 12~14일 사흘에 걸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10척을 나포
12월16일(수)	한 해경본부·중 해경국, 해양 범죄예방 등 위한 MOU
	17일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公安부에서 업무협약 체결, 2013년과 2014년 2차례 걸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위해 업무협약 체결
12월16일(수)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가혹행위... 안전처, 전수조사 착수(NEWSIS)
	전국 20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지난달 기준으로 소방서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1186명, 강원도 의무소방원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건계기로 전수조사 실시

12월16일(수)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안전신문고 1년(KTV)
	안전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384명 중 만족하다는 응답자는 61.5%, 안전신문고 개통이후 지난 11월30일까지 모두 6만8천건 신고, 96.8% 정도 처리
12월16일(수)	화학사고 절반은 작업자 부주의 탓(연합뉴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4년도 화학사고 104건을 분석,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47.1%, 49건), 시설관리 미흡(31.7%), 운송차량 사고(21.2%) 순, 사고 형태는 화학물질 유출 또는 누출(76%, 79건), 폭발(10.6%), 화재(7.7%) 등 순
12월17일(목)	세기 말 해운대 백사장 잠길 수도(세계일보)
	해수면 85년 안에 1m 높아져..., 한반도 40년간 10cm 상승, 변화폭 남해·동해·서해 순...
12월17일(목)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4명이 노인'(헤럴드경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4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중 38%인 1815명이 65세 이상 노인, 안전처는 이달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 노인보호구역과 노인 보행자 사고 우려가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
12월17일(목)	'감염병 환자 이송' 병원장이 소방서에 직접 통보해야(동아일보)
	내년부터 119구급대로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장이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119구조구급법을 입법 예고
12월17일(목)	한중 해경, 첫 '24시간 핫라인'구축... "불법조업 근절 기여"(연합뉴스)
	해양경비안전본부 홍익태 본부장과 중국 해경국의 명홍웨이 국장이 17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해경국에서 24시간 핫라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12월18일(금)	완도 청산도 앞바다서 선박 화재... 6명 구조(연합뉴스)
	18일 낮 12시 21분께 전남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앞바다에서 2.77t급 레저보트G호에서 화재, 인근 항해중이던 1.72t급 어선 S호에 의해 모두 구조
12월18일(금)	서울 도심 멧돼지 하루 한번 꼴 출몰(조선일보)
	1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전체 324건에 월평균 29.4건, 2010년(6.5) 대비 3배 이상, 멧돼지 출몰이 늘어나는 것은 도심 개발과 둘레길 조성등으로 멧돼지의 서식지가 줄고 있기 때문

12월19일(토)	서해대교 통행 재개(동아일보)
	서해대교의 통행이 19일 0시부터 전면 재개, 3일 화재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통행이 중단된지 16일만
12월20일(일)	"벼락치는 줄 알았어요"... 가평 공사현장 무너져 4명 부상(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야산아래에서 있던 민가 등을 덮쳐 주민 3명과 공사현장 굴착기 기사 1명이 다쳐
12월20일(일)	'안국역 불났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 대거 출동(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지하에서 난 작은 불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난 불로 오인돼 소방차 31대, 소방대원 96명이 출동하는 소동
12월21일(월)	"안전 겹나는 승강기가..." 불법운행 234대 적발(동아일보)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34대가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1만6369대를 점검한 결과 234대를 적발, 지난해 195대 보다 20% 늘어난 수치
12월21일(월)	'남극의 산타' 아라온호, 한국선박 무사 구조(세계일보)
	39명 태우고 조업 중 유빙에 좌초, 해수부 긴급 요청 받은 아라온호 뉴질랜드 가다 현장에 긴급 투입, 사고발생 18시간 만에 작업 완료 4년전 성탄절에도 선박 구출
12월22일(화)	서해해경 기동전단, 주말새 불법 中 어선 20척 나포(아시아투데이)
	지난 18~20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0척을 제한조건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
12월22일(화)	19년 간 못한 한·중 '바다경계' 긋는다(KBS)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서해는 폭이 좁아서 400해리 넘는 곳 없으나 EEZ를 국제해양법 협약대로 각각 200해리 씩 주장, 겹치는 수역의 경계를 1997년부터 논의, 한중 차관급 EEZ 경계 획정 협상 22일 시작
12월22일(화)	전북 익산시 규모 3.5 지진... 곳곳서 진동 감지(연합뉴스)
	새벽 4시31분 전북 익산시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 전북 익산과 군산 등 전북과 충남 지역 등에서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의 진동
12월22일(화)	한두 잔인데 어때?... 5년간 하루 2명꼴 숨져(SBS)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3천648명, 한 해 평균 730명 하루 평균 두 명꼴

12월22일(화)	'베이징 스모그' 오늘 한국 덮친다.(조선일보)
	환경부 대기질 통합예보 센터는 21일 "베이징 상공의 대기오염 물질이 21일 오후부터 바람을 타고 서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2일엔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권에 들 전망"
12월22일(화)	중앙119구조본부, 오늘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디지털타임스)
	22일 대구 달성군 본부 대강당에서 창설 20주년 맞아 새출발과 도약을 결의하는 기념행사 실시
12월23일(수)	강원 소방헬기 국비삭감에 예산확보 '비상'(강원일보)
	신규 소방헬기 도입은 230억원 규모, 50%(92억)만 국비로 지원, 내년도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억원을 삭감, 정부는 국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라며 압박
12월23일(수)	지하 50m 고속철도 공사장 붕괴, 사상자 2명 발생(MBC)
	서울 수서와 경기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매몰, 1명 숨져
12월23일(수)	'직선화'로 사고위험 줄여... 88고속도로 다시 태어났다(한겨레)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이름 바뀌어 확장 개통, 143km(전체 172km) 4차로 확장, 중앙분리대와 입체교차로 설치
12월24일(목)	정부 '메르스 상황 종료' 선언(경향신문)
	5월20일 시작 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이 23일 자정을 기해 공식 종료, 정부는 메르스가 재유입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메르스 종식'이 아닌 '상황종료'를 선언
12월24일(목)	인천 앞바다 공기부양정 추돌사고때 살신성인 해경 오진석 경감 순직 인정(동아일보)
	8월 인천 앞바다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공기부양정을 타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중상을 입었지만 동료들을 먼저 치료받게 한 뒤 끝까지 남아 사고를 처리하다 숨진 오진석 경감이 순직자로 인정 받았다.
12월24일(목)	밀물로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꾼 해경에 구조 (YTN)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꾼 51살 김 모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충남 태안 해양 경비 안전서는 갯바위 낚시를 하다 밀물에 고립된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에서 낚시할 때는 주변 지형지물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물때를 파악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25일(금)	지자체 너도나도 해상케이블카... 안전우려(국민일보)
	여수 이어 사천·목포도 추진, 여수 1년만에 220만명 몰려 흥행 성공했지만 잇단 사고, 안전사고 대비책 시급
12월25일(금)	화이트는 커녕 '스모그 크리스마스'(세계일보)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나쁨', 한반도 상공대기 며칠 간 정체 中 스모그 더해져 공기질 악화 외출때 보건용 마스크 꼭 서야
12월25일(금)	먼지 걷힌 성탄절... 새벽에 눈 온 뒤 '강력 한파'(SBS)
	늦은 밤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남부 곳곳에 눈이나 비,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12월25일(금)	서해대교 화재진압 소방관 5명 '1계급 특진'(News1)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서해대교 화재 당시 목숨을 걸고 100m 상공의 주탑에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5명 1계급 특진
12월26일(토)	오피스텔 신축 현장 거푸집 붕괴, 작업자 7명 부상(MBC)
	25일 7시반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58살 최 모 씨등 7명이 매몰되었다 구조, 허리와 다리를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12월27일(일)	제주서 낚시어선 화재로 선장 사망... 낚시객 등은 무사(연합뉴스)
	27일 오후 6시 41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 앞 13km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78피싱호(9.77t·승선원 6명)의 기관실에 화재 발생, 선장 최씨가 진화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12월28일(월)	서울 녹번동 공사장 터파기에 주변 주택 8개 동 붕괴위험... 주민 132명 대피(동아일보)
	9월 철거 공사를 마치고 이달 15일 착공된 2개동 22채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 현장에서 24일부터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5일 저녁부터 균열이 급격히 확대, 연휴가 지난 뒤인 28일 대책을 마련하려던 은평구는 결국 26일 새벽 가스관 파열을 확인하고 붕괴위험 주택 2채를 안전등급 최하인 E등급을 지정, 이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주택 5개 동에 사는 주민 등 132명에게 대피 명령
12월29일(화)	12년 만에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벽(한겨레)
	2003년 2월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이 12년만에 세워져

12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발 행 : 2016년 12월

발행처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전 화 : 044) 205-4121

팩 스 : 044) 205-8928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3

국민안전처 422호(나성동)

<http://www.safekorea.go.kr>
